

아프리카 신흥 에너지 강국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이집트·나이지리아·알제리

2006. 3.

총 목 차	
-------	--

■ 이 집 트	1
■ 나이지리아	105
■ 알 제 리	331

이

집

트



I. 국가개황

1. 일반개황	13
2. 정치개황	14
3. 경제개황	16
4. 이집트 역사	17
5. 우리나라와의 관계	19

II. 경제 · 정치 현황

1. 경제동향	21
가. 국내경제	21
나. 국제경제	26
다. 국제신인도	33
2. 정치 · 사회동향	36
가. 정치동향	36
나. 사회동향	37
다. 대외관계	38
3. 종합전망	40

III. 주요 산업

1. 산업구조	41
2. 서비스업	41
3. 제조업	43

차 례

4. 자원개발산업	48
5. 농업	53

IV. 외국인투자 환경

1. 외국인투자 정책 및 제도	55
가. 외국인투자 정책	55
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56
다. 외국인투자 절차 및 제도	61
2. 외국인투자 여건	70
가. 무역 및 관세제도	70
나. 외환제도	78
다. 금융제도	81
라. 조세제도	83
마. 노동제도	88

V. 우리나라의 진출확대 방안

1. 양국간 교역 및 투자 현황	93
가. 교역현황	93
나. 해외직접투자 현황	95
다.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현황	97

차 례

2. 진출확대 방안	98
가. 진출시 유의사항	98
나. 수출 및 투자진출 유망 분야	100
다. 정책과제	103

표, 그림, 참고 목차

<표 I-1> 최근 對 이집트 수출입 추이	20
<표 I-2> 최근 對 이집트 직접투자 추이	20
<표 II-1> 주요 국내경제지표(2002~06년)	21
<표 II-2> 주요 국제경제지표(2002~06년)	26
<표 II-3> 주요 무역 상대국(2004년)	31
<표 II-4> FDI 유입 추이(2002~06년)	32
<표 II-5> 주요 외채지표(2002~06년)	33
<표 II-6> 이집트 ODA 수원현황(2001~03년)	34
<표 II-7> 분야별 ODA 수원현황(2001~03년)	34
<표 III-1> 연도별 관광수입 및 관광객 수(2001~05년)	41
<표 II-2> 스웨즈 운하 통행 현황(2000~04년)	42
<표 III-3> 이집트 주요 산업생산(2002~04년)	44
<표 III-4> 이집트 천연가스 주요 통계(1999~04년)	50
<표 V-1> 연도별 한-이집트 교역 현황	93
<표 V-2> 한국의 對 이집트 주요 수출 품목	94
<표 V-3> 한국의 對 이집트 주요 수입 품목	95
<표 V-4> 우리기업의 對 이집트 주요 해외투자사업 현황	96
<표 V-5> 수출입은행 對 이집트 금융지원 현황	98
<표 V-6> 이집트의 자유무역 협정 체결 현황	99
<그림 II-1> 스웨즈 운하	28
<그림 III-1> 이집트 석유 생산량 및 소비량 추이	49

표, 그림, 참고 목차

<참고 I> 스웨즈 운하의 경제적 의의	27
<참고 II> 이집트-EU간의 협력조약 발효 및 영향	31
<참고 III> 이집트-EU 가스관 연결 사업	51
<참고 IV> 이집트 수입개방 및 관세 인하현황	72

요 약

□ 2005년 GDP 929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 1,251달러

- 국제적인 고유가 지속 및 정부 재정지출 확대, 미국의 원조자금 유입, 관광 및 스웨즈 운하 수입 증가 등에 힘입어 이집트 경제는 회복세에 있음.
- 2006년에도 나지프(Nazif) 총리의 경제구조 개혁의 결과, 투자가 활성화되고 내수소비가 증가되어 전년보다 높은 4.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제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2005년 경제성장률 4.1%, 2006년 4.8% 경제 성장 전망
- 이집트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및 인프라사업 등 국책사업에 대한 지출 확대로 재정수지는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이집트는 인구 7,000만 명 이상의 거대한 내수시장과 그에 따른 규모의 경제, 유럽, 중동, 아프리카를 잇는 전략적 위치, 친서방적인 자세 등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이 지속되고 있음.
- 외환보유액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5년도 채무상환비율(D.S.R.)은 6.3%로 비교적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음. 외채 중 중장기 외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양호한 외채구조를 보이고 있어 외채상환불능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 2005년 말 현재 외환보유액 247억 달러

요약

□ 정치·외교 상황 : 무바라크(Mubarak) 대통령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 서방 국가들과 우호관계 유지

- 1981년 이래 집권하고 있는 무바라크(Mubarak) 대통령은 여당인 국민민주당(NDP)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군부의 지지를 확보하고, 이슬람교 과격 세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면서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음.

- 1991년 걸프전 당시 연합군편에 가담하면서 미국 및 서방세계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며, 팔레스타인·이스라엘간 평화 정착을 위한 로드맵(Roadmap) 추진 과정에서도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산업 구조 : 관광, 스웨즈 운하 운용 등 서비스업 중심, 향후 석유화학산업을 국가 중심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

- 관광, 스웨즈 운하 운용 등 서비스업이 국가 GDP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어 테러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한 외부 충격에 민감함.

- 이집트 정부는 최근 오일달러 유입과 천연가스 생산 증가를 활용, 석유화학산업을 국가 중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단지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개발 계획을 발표, 우리기업의 활발한 참여가 기대됨.

이집트

□ 수출입동향 : 수출과 수입 모두 증가 추세

- 2005년에는 고유가 지속, 이집트 파운드 평가절하, LNG(천연가스) 수출 등에 힘입어 수출이 증가하였음.
- WTO 및 세계은행 등이 요구한 대로 수입규제 조치를 완화하면서 이집트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고 수입관세율 인하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임.
 - 2005년 수출 175억 달러, 수입 281억 달러

□ 주요 무역상대국 : 미국과 EU 국가들과의 교역 활발

- 서방국가들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집트는 2004년 기준으로 미국과의 수출입이 총교역량의 12.1%를 차지하였으며, 이탈리아(9.8%), 프랑스(5.4%)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2004년 6월 이집트-EU간 협력조약(Egypt-EU Partnership Agreement) 발효로 EU 국가들과의 교역 규모는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됨.

□ FDI :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지속

- 이집트는 인구 7,000만 명 이상의 거대한 내수시장과 그에 따른 규모의 경제, 유럽, 중동, 아프리카를 잇는 전략적 위치, 친서방적인 자세 등으로 외국인투자 여건이 양호함.
 - 2005년 FDI 유입액 48.5억 달러, GDP 대비 5.2% 수준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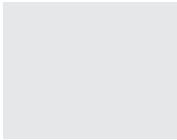
□ 진출전략 : 석유화학 플랜트, IT 등 이집트 정부의 미래 육성사업을 중심으로 진출 모색

- 최근 석유화학산업 발전계획 시행에 따른 석유화학플랜트 건설과 정부에 의해 중점 육성되고 있는 IT 산업 등 미래 육성사업 진출 모색
- 풍부한 노동력, EU, 미국, 아프리카 등과 체결된 다양한 무역협정의 혜택을 활용, 전통적 강세 업종인 섬유·의류 및 제약 산업 유망

I. 국가개황

1. 일반개황

- ☐ 국 명 : 이집트(Arab Republic of Egypt)
- ☐ 면 적 : 998천 km²(한반도의 5배)
- ☐ 주요도시 : 수도 카이로(17 백만), 알렉산드리아(3.5백만), 포트사이드(0.47백만), 스웨즈(0.42백만)
- ☐ 인 구 : 72백만 명(2005 년)
- ☐ 민족구성 : 아랍계 이집트인(98%), 베드윈인, 누비아인
- ☐ 종 교 : 회교(94%, 대부분 수니파), 기독교(6%)
- ☐ 기 후 : 아열대성 사막기후
- ☐ 정부형태 : 대통령중심제
- ☐ 독 립 : 1953. 6. 18(영국)
- ☐ 국가원수 : 호스니 무바라크(Hosni Mubarak) 대통령
- ☐ 행정구역 : 26개주
- ☐ 군 사 력 : 육군 400,000명, 해군 80,000명 공군 25,000명



이집트

□ 국제기구 : UN, IMF, IBRD, WTO, AU, 비동맹

□ 시 차 : 한국보다 7시간 늦음.

□ 공 휴 일 :

- 곱틱 크리스마스(곱틱기독교의 성탄절, 1. 7)
 - 대바이람*(성지순례휴일, 1. 19 ~ 23)
 - 이슬람 새해*(2. 10)
 - 모하메드탄생 기념일*(4. 21)
 - 시나이반도 탈환일(4. 25)
 - 노동절(5. 1)
 - 봄의날(상춘절, 5. 2)
 - 혁명 기념일(7. 23)
 - 국군의 날(10. 6)
 - 금식월(10. 4~ 11. 2)
 - 소바이람*(금식후 축제일, 11. 3 ~ 11. 5)
- ※ 이슬람력으로 전후 하루 정도 오차가 날 수 있음.

2. 정치개황

□ 정부형태 :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국가원수)>

□ 임 기 : 6년, 연임가능(현 무바라크(Mubarak) 대통령 81. 10 취임후,
05. 9. 27 제 5기 연임)

I 국가 개황

□ 권 한 : 의회해산권, 비상조치권, 헌법개정안 및 국민투표 발의권, 총리 및 각료임명권 등

□ 대통령 유고시 부통령(현재 공석), 국회의장, 대법원장 순으로 대통령 직 대행

<국민의회(People's Assembly)>

□ 임 기 : 5년

□ 의원수 : 444명(전국 222개 선거구에서 각구 2명씩 선출, 이중 1명은 노동자 또는 농민대표)

□ 의 장 : 아흐멧파티 소로르(Ahmed Fathi Sorour)

□ 권 한 : 입법권, 일반 국가정책 승인권, 국가경제사회 개발계획 및 국가예산 승인권, 대 행정부 견제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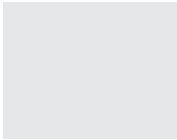
<Shura(Consultative) Council>

□ 임 기 : 6년(매 3년 마다 1/2이 지명과 선거로 교체)

□ 구 성 : 264명(1/3은 대통령이 지명, 2/3은 88개 선거구에서 각 2명씩 직선에 의해 선출)

□ 기 능 : 대통령과 의회에 대한 자문역

□ 자문사항 : 헌법개정 제안사항 및 헌법내용을 보완하는 법 초안, 사회 경제 개발 초안, 국가의 영토와 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평화 조약, 동맹 및 국제조약, 대통령이 의회에 회부하는 법안, 국내정책 또는 아랍 및 외교에 대한 대외 정책으로 대통령이 의회에 회부하는 모든 사항



이집트

<정당>

- ☐ 복수 정당제로서 집권당인 국민민주당(National Democratic Party) 및 신와프드당(New-Wafd Party), 국민진보연합당(National Progressive Unionist Party), 사회주의노동당(Socialist Labor Party) 등 16개의 정당이 활동 중

<사법부>

- ☐ 사법부 제도 : 헌법상 법원과 재판관의 독립성 부여
- ☐ 조 직 : 3개 기관으로 구성
 - 법원(Primary Court)
 - 항소법원(Administrative Judiciary)
 - 대법원(The Supreme Court of Appeal or Cassation Court)

3. 경제개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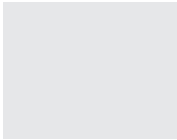
- ☐ 국내총생산(2005년) : 929억 달러
- ☐ 1인당 GDP(2005년) : 1,251달러
- ☐ 화폐단위 : Egyptian Pound(E£)
- ☐ 회계연도 : 7. 1 ~ 6. 30
- ☐ 산업구조(2005년) : 농업 13.9%, 광공업 14.8%, 에너지업 18.2%, 제조업 10.9%
- ☐ 주요 수출품(2004년) : 석유제품 35.4%, 공산품 6.1%, 면직 5.7%

I 국가 개황

- 주요 수입품(2004년) : 공산품 26.6%, 운수장비 19.2%, 면직 17.3%
- 주요 수출국(2004년) : 이탈리아 12.8%, 미국 11.6%, 영국 7.3%,
프랑스 4.9%
- 주요 수입국(2004년) : 미국 12.5%, 독일 6.8%, 이탈리아 6.8%,
프랑스 5.8%
- 경제성장률(2005년) : 4.1%
- 물가상승률(2005년) : 5.2%
- 무역규모(2005년) : 수출 148억 달러, 수입 255억 달러
- 외환보유액(2004년) : 247억 달러
- 외채(2004년) : 367억 달러

4. 이집트 역사

- BC 3100~332년 : 고대 이집트(파라오 왕조)시대
- BC 332~30년 : 그리스 시대(프톨레미 왕조)
- BC 30~AD337년 : 로마 제국시대
- AD 640년~1517년 : 이슬람 시대
- 1517~1798년 : 오스만 터키 통치시대
- 1798~1801년 : 프랑스의 이집트 지배



이집트

□ 1801~1881년 : 이집트 근대왕조 성립

□ 1882~1936년 : 영국의 군사점령과 통치

- 1882년 영국으로부터 독립 쟁취, 국제연맹 가입(1936년까지 영국의 실질적 지배 지속)

□ 1948년 : 제 1차 중동전쟁

- 이스라엘 독립국가 건설(1947년 UN의 팔레스타인 분할결의안)에 반대한 아랍 국가들이 이-팔간 내전에 개입,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패배

□ 1952년 : 나세르(Nasser) 중령 휘하의 자유 장교단 혁명

- 왕정 폐지, 이집트 아랍공화국 성립,

□ 1956년 : 제 2차 중동전쟁

- 영국, 프랑스 및 이스라엘의 이집트 공격으로 제 2차 중동전쟁 발발, 유엔의 중재로 휴전

□ 1958년 : 이집트-시리아 아랍연방 공화국 결성(1961년 시리아 탈퇴)

□ 1967년 : 제 3차 중동전쟁

- 소련의 지원을 받은 시리아, 이집트, 요르단 등이 군사동맹을 체결하고 팔레스타인 지원, 이스라엘의 타이란항 봉쇄 조치 등을 취하자, 미국과 영국의 지원을 받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공격

I 국가 개황

- 1970년 : 사다트(Sadat) 대통령 취임
- 1973년 : 제 4차 중동전쟁
 - 시나이 반도 등 회복을 위해 이집트 등 아랍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으나 실패
 - 이집트·이스라엘의 평화협상 계기마련
- 1979년 : 이집트·이스라엘 평화협정 체결
- 1981년 : 사다트(Sadat) 대통령 피살, 무바라크(Mubarak) 대통령 취임
- 1991년 :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대항한 걸프전 참전을 계기로 아랍의 중심으로 재부상(걸프전 직후 아랍연맹 본부를 카이로로 옮김)
- 1999년 : 무바라크(Mubarak) 대통령 4번째 대통령 당선
- 2004년 : 나지프(Nazif) 총리 취임
- 2005년 : 대통령 직선제에 의해 무바라크(Mubarak) 대통령 5번째로 대통령 당선

5.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 1995. 4. 13 수교(북한과는 1963. 8. 25 수교)
- 주요협정 : 문화협정(69), 항공협정(88), 이중과세 방지협정(92), 무역협정(96), 투자보장협정(96), 사증면제협정(98)

이집트

□ 교역현황

<표 I -1> 최근 對 이집트 수출입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2001	2002	2003	2004	2005.11	주요 품목
수 출	431	321	425	538	629	식물, 철강제품
수 입	139	134	195	337	138	농수산물, 섬유, 전자부품

자료 : KOTIS

□ 해외직접투자 현황

<표 I -2> 최근 對 이집트 직접투자 추이

단위 : 건, 천 달러

	2001	2002	2003	2004	2005
건 수	1	0	1	2	0
액 수	6,747	2,575	3,403	14,850	3,457

주 : 순투자 기준, 2005년 11월말 현재 총투자규모 : 15건, 138백만 달러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정보

Ⅱ. 경제·정치 현황

1. 경제동향

가. 국내경제

<표 Ⅱ-1> 주요 국내경제지표(2002~06년)

구 분	단위	2002	2003	2004	2005 ^o	2006 ^r
G D P	억 달러	842	715	783	929	1,028
1인당 GDP	달러	1,200	1,000	1,080	1,260	1,360
경제 성장률	%	3.0	1.8	2.7	4.1	4.8
물가 상승률	%	2.7	4.5	11.3	5.2	4.5
재정수지/GDP	%	-5.9	-6.1	-5.9	-6.9	-7.8
대미달러 환율	£	4.5	5.84	6.20	5.78	5.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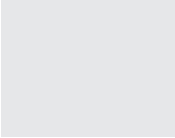
자료: IMF, FS 및 EIU, Country Report 각호

1) 경제성장

□ 경제성장 회복세

- 2002~03년 기간 중에는 이라크 전쟁과 미국 9.11 사태 이후 관광산업이 부진하여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이 지속되었음.

■ 이집트의 고이자율 정책으로 인한 기업투자 감소 및 외환 부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등으로, 동 기간 중에는 2.5%의 경제 성장을 보임.



이집트

- 그러나, 최근 이집트 경제는 지역정세 안정 및 관광사업 회복과 더불어, 국제적인 고유가 지속 재정지출 확대, 미국의 원조자금 유입 및 스웨즈 운하 수입 증가 등에 힘입어 회복세에 있으며, 2005년 4.1%의 경제성장을 시현한 것으로 추정됨.

□ 2006년 4.8%의 경제성장 예상

- 2006년에는 나지프(Nazif) 총리의 경제구조 개혁에 의한 투자 활성화 및 내수소비 증가로 전년보다 소폭 상승한 4.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경제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이집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경제개혁 조치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연결되고 있으며, 금융개혁과 세제인하, 민영화 조치 등은 외국 투자자의 신뢰도 증진, 투자유입 등 경기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국제적인 고유가 지속과 지속적인 유전 및 천연가스 탐사분야에 대한 외국자본 유입이 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킬 것이 기대되며, 국영은행이나 이집트 텔레콤 등 우량 국영기업의 민영화 작업이 결실을 맺고 있는 점도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재정수지

□ 재정수지 만성적자 기조

- 이집트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과 인프라사업 등 국책사업에 대한 지출 확대에 의해 재정수지는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적자폭이 GDP의 약 6.9%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Ⅱ 경제·정치 현황

- 2006년에는 정부의 관세율, 소득세율, 법인세율 등의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정부기관 인금 인상, 채무상환 부담액 증가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폭이 소폭 확대되어 GDP의 7.8%대에 이를 전망이다.

3) 물가 및 환율

□ 2004년 물가상승률 11.3%로 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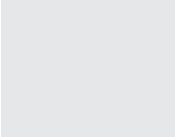
- 경기침체와 정부의 긴축정책으로 2002년까지 물가는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나, 2003~04년간 이집트 파운드화의 평가절하로 인한 급격한 환율인상과 국제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주요 수입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2004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1.3%로 급상승하였음.

□ 2006년 이후, 소비자 물가 안정세 유지 전망

- 2005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0%대로, 이집트 정부의 금융 산업 구조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통화 관리체제 구축, 강력한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 시행과 파운드화 가치 안정에 힘입어, 예년에 비해서 비교적 크게 낮아진 것으로 평가됨. 2006년 이후 물가상승률은 약 4%대의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는 등 물가오름세는 상당 부분 진정될 것으로 예상됨.

□ 환율 안정세 유지 전망

- 2003년 전격적으로 변동환율제를 도입한 이후 1년 6개월 동안 극심한 환율변동을 겪었으나 2004년 7월 이후 \$1=5.78 E£ 선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또한,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와 관광수입 증가로 인한 서비스 수지



이집트

호조세,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등에 따른 외환유입과 안정적 경제성장 등에 힘입어 당분간 현 수준의 환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4) 경제정책

□ 나지프(Nazif) 총리, 무역 자유화 등 경제개혁정책 추진

- 5년 동안 집권한 오베이드(Obeid) 총리가 부진한 경제 개혁에 대한 책임으로 퇴진하고, 2004년 7월에 출범한 나지프(Nazif) 내각은 개혁지향적인 경제개혁 조치인 수입관세 인하(14.6% → 9.1%), 통관 절차의 간소화, 금융 산업 개편, 무역 자유화 조치 등을 단행하여 긍정적인 평을 얻고 있음.
- 새 내각은 중요 경제 정책의 하나로 무역환경을 개선하고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 등 359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하하고 무역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법규를 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음.

□ 공기업 민영화

- 1991년부터 이집트 정부는 민영화법(Law 230)을 제정, 314개 국영 기업을 민영화한다는 목표 하에 민영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1993년 이래 2003년 까지 약 200개 기업 민영화를 했으나 일부 기업은 채무 과다와 고용인력 해고 문제 등의 사유로 민영화가 부진하였음.

Ⅱ 경제·정치 현황

- 현 나지프(Nazif) 내각 역시 공기업 민영화를 최대 경제현안으로 간주, 34개 기업을 선정해 민영화 계획을 추진 중이며, 국영 Telecom Egypt, Egypt Air, Alexandria Bank 등 그동안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우량 기업들을 매각대상에 포함시켜 활발한 민영화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국제 투자회사들이 우량 공기업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음.
- 아울러, 석유화학, 원유정제, 면방직 분야의 공기업 민영화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2005년도 외국인 투자 유치액이 작년 대비 급증하였음.

□ 실업률 감소 중점 추진

- 2005년 정부발표 공식 실업률은 10%에 불과하나 잠재실업이 15~25% 이상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고학력층은 35~45%에 가까운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음.
- 이집트는 중동·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가장 급속한 인구증가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임.
 -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1.9~2.0%에 이르고 있어 매년 140만명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실업과 도시집중화, 주택 및 교통 체증 등 많은 사회 경제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 2004년 이집트 경제계획부는 이집트 내 만성적인 실업 문제가 경제 전반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집트 경제계획부는 민간부문의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신규 고용창출 기회를 마련하는 등 실업률 감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을 밝힌 바 있음. 이에 따라, 이집트는 정부가

이집트

중요한 경제 의제로 추진하고 있는 연간 100만개 일자리 창출사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임.

나. 국제경제

1) 상품수지

□ 상품수지 적자 지속

- 석유산업과 제조업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 적자 기조가 지속되고 있음.
 - 이는 내수회복 및 파운드화 가치 상승, 원자재가 상승, 관세 인하 등에 따라 수입이 증가한 데에 기인함.
- 2006년에는 천연가스의 수출 증가가 수입증가분을 상쇄하여 상품수지 적자폭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표 II -2>

주요 국제경제지표(2002~06년)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a	2006 ^b
경 상 수 지		849	3,721	4,034	2,990	2,900
경 상 수 지 / G D P		1.1	5.0	4.7	3.1	2.9
상 품 수 지		-7,459	-6,169	-9,266	-10,677	-10,600
수	출	7,250	8,987	12,320	14,889	17,500
수	입	14,709	15,156	21,586	25,566	28,100

자료: EIU, Country Report

2) 경상수지

□ 경상수지 흑자 추세

- 2003년 경상수지는 이라크전쟁 조기종결에 따른 관광수입 회복 및 이집트 파운드화 평가절하에 따른 수출 증가로 약 37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함. 2004년에는 수출 증가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국내 경기회복에 따른 수입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4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음.
- 수출증가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2005년에는 내수회복 및 관세 인하에 따른 수입 급증으로 상품수지가 악화되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다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6년에도 경상수지 흑자가 소폭 감소될 전망이다.

<참고 I> 스웨즈 운하의 경제적 의의

- 길이 162.5Km, 수심 8m, 폭 60~100m의 세계 최대의 해양운하로인 이집트 스웨즈 운하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두 대륙의 경계를 이루는 세계에서 가장 긴 운하로, 스웨즈 지역은 역사적으로나 군사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지역이었음.
- 중세 들어 아프리카 진출의 거점인데다 동시에 아시아 무역의 요충지였던 이곳에 운하를 건설하기 위하여 세계 열강사이에 치열한 힘겨루기가 벌어졌음.
- 16세기에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상인들이 아시아 무역을 독점하던 포르투갈, 스페인을 견제하기 위해 운하의 건설을 시도하였음.

이집트

- 17세기에는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영국, 네덜란드의 아시아 무역에 대항하기 위해 운하를 만들려고 했으나, 토목 기술의 부족으로 모두 무산됨.
- 18세기 말 이집트를 정복했던 프랑스의 나폴레옹도 기술부족으로 끝내 운하 건설에 실패하였음.
- 1854년 이집트의 태수가 된 마호메트 사이드 파샤가 프랑스 기업가에게 운하 개착 특허권과 스웨즈 지협 조차권을 주었고, 1856년에는 이집트의 종주국이었던 터키도 이를 승인하였음.
- 이후 10년 6개월에 걸친 장기 공사 끝에 1869년에 개통한 스웨즈 운하는 유럽과 인도양 사이의 거리를 1만 Km나 단축시킴으로써 세계 해양 교통의 역사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는 등, 국제 경제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그림 II-1>

스웨즈 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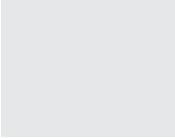
II 경제·정치 현황

- 스웨즈 운하가 개통되면서 그전까지 아프리카 남쪽의 희망봉을 돌아가던 선박들이 지중해를 거쳐 곧장 인도양으로 갈 수 있게 되었음. 예를 들면,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희망봉을 경유하면 2만 7,000Km이지만 스웨즈 운하를 통과하면 1만 200Km로 줄어들며, 운항 비용은 물론 시간상 1주일 이상을 벌 수 있음. 현재, 스웨즈 운하는 전 세계의 물동량의 14%를 소모하고 있음.
- 개통당시인 1870년에는 평균 톤수 900톤 미만의 선박 486척이 통과한데 비해서, 1880년에는 평균 톤수 2,140톤 내외의 선박 2,026척이 통과함으로써 10년간 통과 선박 총 톤수가 약 10배로 늘어났음. 2004년 말 선박 16,850척이 통과하였으며, 통행료 수입은 약 30억 달러에 달하는 등, 스웨즈 운하수입은 관광수입, 해외 근로자 송금 다음에 이어 이집트의 3대 외화 소득원임.

3) 수출입동향

□ 수출과 수입 규모가 동반 성장하는 무역 구조

- 2005년 이집트 수출규모는 작년대비 20.8% 증가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이는 국제적인 고유가 지속, 이집트 파운드 평가절하에 따른 이집트 상품경쟁력 강화 및 LNG(천연가스) 수출 증가 등에 기인함.
- 또한, 이집트 정부가 WTO 및 세계은행 등이 요구한 대로 수입규제 조치를 완화하고 수입 관세율을 인하하면서 수입 규모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2005년 수입은 작년 대비 18.4%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이집트

□ 에너지산업 부분이 주요 수출품목

- 아프리카 제5위의 산유국인 이집트는 국제적인 고유가의 지속으로 석유류 수출이 2005년에는 52.3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예상됨.
- 이집트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6조6천억 입방피트로, 이집트는 세계 6~10위권의 천연가스 부국임.
 - 천연가스는 주로 유럽 및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육상 파이프관을 통해서 인접국인 요르단으로도 수출됨. 2006년에는 시리아, 레바논 등으로 파이프관이 연장될 계획으로 천연가스 수출량의 지속적인 증가가 기대됨.

□ 미국 및 EU 국가들과의 교역 활발

- 서방국가들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집트는 2004년 기준으로 미국과의 수출입이 총교역량의 12.1%를 차지하였으며, 이탈리아(9.8%), 프랑스(5.4%)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2004년 6월 이집트-EU 협력조약(Egypt-EU Partnership Agreement) 발효로 EU국가들과의 교역규모는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됨.
- 이외에도 미국, 이스라엘, 이집트간 QIZ 협정¹⁾ 등을 체결함에 따라, 수출액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됨.

1) Qualified Industrial Zone (대미 수출특구) : 이집트의 對美 수출품 생산에 11.7% 이상의 이스라엘 원부자재가 사용될 경우, 對美 무관세 수출이 가능토록 하여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한 협정. 현재 인접국인 요르단에도 QIZ가 설치되어 있어 대미 수출에 있어서 이집트의 QIZ와 경쟁 중임

Ⅱ 경제·정치 현황

<표 Ⅱ-3>

주요 무역 상대국(2004년)

단위 : %

수출국	비율	수입국	비율
이탈리아	12.8	미국	12.5
미국	11.6	독일	6.8
영국	7.3	이탈리아	6.8
프랑스	4.9	프랑스	5.8

자료: EIU, Country Report

<참고 Ⅱ> 이집트-EU간의 협력조약 발효 및 영향

- 이집트와 EU국가들간의 교역 및 투자를 확대하고 상호 원조와 기술적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집트-EU 간의 협력조약 (Egypt-EU Partnership Agreement)이 2004년 6월 1일자로 정식 발효되었음.
- 2003년 말을 기준으로 이집트와 EU는 약 80억 달러에 가까운 교역량을 보이고 있으며 지리적 인접성으로 투자교류도 활발한 편임. 특히, 이집트로서는 자국의 농산물과 의류의 40% 이상을 EU 시장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EU 각국들도 이집트에 매년 5억 달러 이상의 기계 및 원자재를 판매하고 있어 양측은 투자 및 교역 부분에서 중요한 상대방으로 자리 잡게 되었음.
- 이집트는 이번 협력조약의 발효로 EU 각국으로부터 연간 2억5천만 유로 이상의 산업 현대화와 중소기업 육성, 통관 행정의 현대화, 국가 경쟁력 강화와 같은 원조를 제공받게 되나, 향후 6년간에 걸쳐서 EU로부터 수입되는 각종 공산품에 대한 관세 면제 및 감면의 의무이행이 불가피해 짐.

이집트

□ 아울러 양측의 협력조약은 EU와 지중해 연안국의 경제협력체 형성의 사전단계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데 EU는 오는 2010년까지 지중해 인근의 모로코, 알제리 등 북부 및 중동 아랍 국가들을 EU 경제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장기 지역경제통합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4) 외국인 직접투자

<표 II-4>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추이 (2002~06년)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⁵	2006 ¹
FDI 유입액	6.5	2.4	12.5	48.5	30.1
GDP 대비 비중	0.8	0.3	1.6	5.2	2.9

자료: EIU Viewswire

□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지속

- 이집트는 인구 7,000만 명 이상의 거대한 내수시장과 그에 따른 규모의 경제, 유럽, 중동, 아프리카를 잇는 전략적 위치, 친서방적인 자세 등으로 외국인투자에 양호한 여건을 제공하고 있음.
- 2005년에는 이집트 정부가 석유부분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FDI 통계에 반영함에 따라, FDI 유입액이 2004년 GDP 대비 1.6% 수준에서 2005년 GDP 대비 5.2% 수준으로 대폭 증가하였음.

다. 국제신인도

1) 외채 상황

□ 외환보유액 증가 추세

- 2005년 말 외환보유액은 약 247억 달러로 추정되며, 금년도에도 관광수입, 스웨즈 운하 수입증가와 은행, 석유부분 등 국영기업의 외자유치를 통한 민영화에 힘입어 외환보유액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1987, 1990, 1991년 파리클럽 리스케줄링을 경험한 바 있어 외채도입에 비교적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으며, 2005년 채무상환비율(D.S.R.)은 6.3%로 비교적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03년 말 동국의 총 외채 314억 달러 중 중장기 외채가 87%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양호한 외채구조를 보이고 있음.
 - 총수출 대비 외채잔액 비율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등 외채상환불능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표 Ⅱ-5>

주요 외채지표(2002~06년)

단위: 십억 달러, %

	2002	2003	2004	2005 ^a	2006 ^b
총 외 채 잔 액	30.3	31.4	34.2	36.7	36.5
외 환 보 유 액	13.3	13.6	14.3	24.7	-
총 외 채 잔액 / G D P	38.6	41.9	39.9	37.5	34.3
총 외 채 잔액 / 수 출	149	133	115	108	95
D . S . R	10.3	11.7	6.4	6.3	7.1

자료: EIU Viewswire

이집트

2) 공적개발원조 동향

□ 최대 원조 지원국은 미국

<표 II -6> 이집트 공적개발원조(ODA) 수원현황(2001~03년)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01	2002	2003
이국간	1090.3	1123.9	775.1
(증여)	(1237.3)	(1318.4)	(980.3)
미국	630.1	845.9	441.8
프랑스	201.5	100.0	100.0
덴마크	25.2	16.1	41.2
다국간	105.0	84.3	85.8
(증여)	(97.2)	(76.2)	(93.2)
합계	1,256.7	1,238.7	893.8
(증여)	(1,386.9)	(1,436.0)	(1,109.7)

자료: OECD DAC, 2005(총 수취액 기준)

<표 II -7> 분야별 ODA 수원현황(2001~03년)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01	2002	2003
사회인프라	465.9	228.5	223.4
경제인프라 (도로 등)	49.6	130.5	287.0
산업부문 (농업, 광업 등)	128.4	379.5	69.1
기타	466.4	461.7	392.3
총계	1,110.3	1,200.2	971.8

자료: 이국간 약정액 기준(OECD,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Financial Flows, 2004)

II 경제·정치 현황

- 이집트는 2001~03년 중 연평균 1,130백만 달러(총 수취액 기준)의 ODA를 지원받았으며, 이중 이국간원조가 약 88%(996백만 달러), 다국간원조가 12%(134백만 달러)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
- 국별로는 최대 원조국인 미국이 연평균 639백만 달러를 지원하여 전체 이국간 원조의 56%를 차지하였음. 대미 우호관계 유지가 이집트 정부의 대외정책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음.

3) 국제신인도

□ 국제신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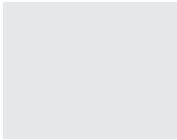
- S&P와 Moody's는 2002년 이후 현재까지 동국의 신용등급을 각각 BB+와 Ba1로 유지하고 있음. 2005년 3월 S&P는 이집트 정부의 개혁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동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한바 있음.

□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 등급 상승

- OECD : 4등급(04. 10) → 4등급(05. 10)
- I.C.R.G. : 87/140(05. 10) → 83/140(05. 12)
- I.I : 68/173(05. 3) → 67/173(05. 9)
- Euromoney : 73/185(05. 3) → 72/185(05. 9)

□ 주요 ECA의 지원태도

- US EXIM : 최고 부보율 적용
- 영국 ECGD : 최고 부보율 적용



이집트

- 독일 Hermes : 단기 인수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2. 정치 · 사회동향

가. 정치동향

□ 무바라크(Mubarak) 대통령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

- 1981년 이래 집권하고 있는 무바라크 대통령은 여당인 국민민주당(NDP)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군부 지지를 확보하고, 이슬람 과격 세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면서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음.
- 직선제 개헌안이 통과되면서 이집트 역사상 처음으로 2005년 9월 국민직선을 통해 선출된 무바라크(Mubarak) 대통령은 5선 연임을 하게 되었음.
 - 정부에 의하면 투표율은 53%였으며, 89%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된 것으로 발표되었으나, 선관위는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23%에 그쳤다고 집계하였음.
- 그러나, 2004년도 국민투표를 통한 헌법 개정으로 이제는 복수 후보 등록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민주화 정치개혁이 점진적으로 실현될 것으로 기대됨.

□ 나지프(Nazif) 신임총리 내각 출범

- 5년동안 집권한 오베이드(Obeid) 전 총리가 부진한 경제개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퇴진하고, 2004년 7월 나지프(Nazif)가 신임총리로 임명되었음.

II 경제·정치 현황

- 신임 총리는 수입관세 인하, 통관절차의 간소화, 금융 산업 민영화 추진,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대폭 인하 등을 통한 소비촉진 및 고용 창출을 도모 하고 있음.
- 오베이드(Obeid) 전 총리(72세) 내각에서 장기 재임한 원료 관료들 중 상당수가 퇴임하고, 40대 전후의 신진 기술 관료가 다수 입각함.
- 새로 입각한 14명의 관료 중 기업인 및 학계출신 신진인사가 경제 및 교육부처에 기용되었으며, 투자부가 신설된 바, 경제와 교육 분야 개혁에 중점을 두려는 나지프(Nazif) 총리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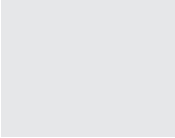
나. 사회동향

□ 전반적인 사회 안정 유지

- 회교원리주의 단체의 활동, 이라크전을 전후한 반미 시위, 무바라크 장기 집권을 비난하는 집회 등이 있었으나 대규모 시위나 전면적인 내전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음.
- 오베이드(Obeid) 총리 집권 5년 동안 빈부 격차와 소외 계층 증가, 고학력 청년 실업 증가 등 경제난으로 인한 불안 요인이 상존하였으나, 2004년 중반 내각 개편을 통해 집권한 나지프(Nazif) 총리가 세제개혁, 금융개혁 민영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제난 타개에 주력하고 있음.

□ 이슬람 과격세력에 대한 정부의 대처

- 서구의 영향을 거부하고 회교 원리에 따른 국가통치를 요구하는 원리주의 세력의 영향과 빈부격차 및 빈곤, 실업 등에서 나타나는 계층간



이집트

대립과 불만을 배경으로, 최대 야당세력인 Muslim Brotherhood, Gamma Islamiya, Al-Jihad 등 3대 회교 원리주의 그룹이 활동하였으나, 현재는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세력이 상당부분 위축되었음.

다. 대외관계

□ 서방국가들과 우호관계 유지

- 1991년 걸프전 당시 연합군에 가담하면서 미국 및 서방세계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며, 서방 강대국과의 우호 협력 관계 발전이 현 무바라크(Mubarak) 대통령 정부의 주요 대외 정책임.
- 특히 미국은 이집트 정부 앞으로 매년 경제원조와 군사원조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집트의 최대 교역 대상국임.
 - 이집트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및 이라크 문제에서 미국측과 조율을 이루는 가운데 중동평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
- 또한, 이집트는 EU 국가들에게 중동평화협상에서 역할을 강화해 줄 것과 팔레스타인 입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면서 대 이집트 투자확대도 요청하고 있음.
 - 이집트와 EU 국가들과의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상호 원조와 기술적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집트-EU간의 협력조약(Egypt-EU 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한바 있음.

□ 중동지역 평화 및 정세 안정을 위해 노력

- 이집트 정부는 4차에 걸친 중동전쟁 이후 아랍권 내에서 이스라엘과 최초로 평화협정을 1979년에 체결하였고, 인근 아랍국과도 원만한

II 경제·정치 현황

관계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 협상 등 중동 평화협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는 만큼 중동평화협상의 기본 틀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중동평화협상 중재의 중요한 축이 되었던 요르단 후세인왕이 서거하면서 중동 평화협상에 있어서 이집트 무바라크(Mubarak) 대통령의 중재 역할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었음.
- 2004년 11월 이라크 안정화를 위한 국제회의(삼엘세이크) 주선, 2005년 6월 브뤼셀에서 열린 이라크 지원 국제회의에 참여하는 등 중동 평화 정착을 위한 여러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미국 부시 대통령의 중동평화 로드맵을 이스라엘·팔레스타인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서 지지하고 있음.

□ 대아프리카 외교관계 강화

- 2005년 이집트·이디오피아 정상회담 및 NEPAD(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정상회의를 이집트에서 개최하는 등 아프리카 외교 강화에 노력하고 있음.
- 이집트 정부의 대 아프리카 외교관계 강화의 배경으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나일강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이집트 상품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3. 종합전망

□ 이집트는 인구 약 7천 2백만 명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최근 5년간 평균 3%대의 꾸준한 경제성장률을 보이고는 있는 신흥시장임.

– 2005년 전체 수입액이 255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95년 이후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의 수입시장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상위 10%인 약 700만 명이 연 소득 1만 달러 이상의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음.

– 거대한 시장규모, 풍부한 노동력, 정치적 안정과 유럽, 친서방적인 자세 등으로 중동의 아랍 국가들 중에서 외국인 투자 여건이 양호한 국가 중의 하나로 평가됨.

□ 만성적인 재정적자 기조 탈피, 공기업 민영화, 무역 자유화 등 경제개혁정책 추진, 15~25%에 이르는 고실업률 해소가 이집트 정부가 해결해야하는 최우선 과제임.

Ⅲ. 주요 산업

1. 산업구조

□ 이집트는 아랍권 최대 인구(약 72백만명)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두 번째의 GDP 규모를 가진 지역 경제대국으로, 관광 및 스웨즈 운하 사업 등의 서비스 산업이 국가 경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관광, 스웨즈운하 운송 등 서비스업이 국가 GDP (2005년 예상 : U\$92.6bn)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섬유산업 · 식료품 가공 중심의 제조업이 18.2%, 석유 · 천연가스 등의 자원개발 산업이 14.8%, 면화 중심의 농업 부문이 13.9%를 점하고 있음.

2. 서비스업

□ 관광업 : 2004년 이후 최대 호황 구가

- 관광업은 이집트 최대의 외화수입원으로, 이라크전 종전 이후 지역정세가 안정되고 경쟁 시장인 동남아에서 해일과 테러가 발생하면서 2004년 이후 사상 최대의 호황을 기록하며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표 Ⅲ-1> 연도별 관광수입 및 관광객수(2001~05년)

단위 : 억 달러, 백만 명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관광 수입	38	38	46	65	70
관광객 수	4.6	5.2	6.0	8.1	8.5

자료: 이집트 중앙은행

이집트

- 이집트 관광산업은 지난 1997년 룩소르(Luxor) 테러 및 이라크전 발발로 큰 타격을 받는 등 주변 안보상황과 테러발생에 따라 매우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 왔음.

- 그러나 2005년 7월 발생하여 90여명의 사상자를 낸 샤름 엘 셰이크(Sharm al-Sheikh) 테러 사건은 예상보다 큰 충격 없이 빠른 속도로 안정을 회복하고 있음.

□ 스웨즈 운하 운용 : 고유가로 통행량 증가

- 스웨즈 운하 통행료 수입은 최근의 고유가로 인한 대형 벌크선과 유조선 통행량 증가로 인해, 2003년 26억불에서 2004년 약 31억불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표 Ⅲ-2> 스웨즈 운하 통행 현황(2000~04년)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통과 선박 수	14,141	13,986	13,447	15,667	16,850
운송화물 통과량(백만톤)	439	458	445	567	621
운송료 수입(백만달러)	1,942	1,911	1,964	2,606	3,085

자료: Suez Canal Authority

□ 금융 : 강도 높은 구조조정 작업 진행 중

- 1993년 금융시장 개방 이후, 급속히 늘어나기 시작한 금융기관 수는 2004년 6월, 61개에 달함.
- 이들 상업은행 중 국가가 최대 주주로 있는 4대 상업은행 (The National Bank of Egypt, The Bank of Alexandria, The Banque du Caire, The Banque Misr)이 금융시장을 지배하고 있음. (상기 4대은행이 전체 예금의 70%, 여신의 59% 차지)

Ⅲ 주요 산업

- 1998년 시장 환율 시스템 도입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 충격과 경기침체로 많은 금융기관이 부실화되었음
 - 이에 신임 나지프(Nazif) 총리는 금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금융기관 법정 최소자본금을 약 15백만 달러에서 81백만 달러로 인상하였음.
- 개혁입법 이후, 군소 은행간 활발한 인수·합병이 진행 중이며, 아울러 은행 민영화 작업을 진행 중인 이집트 정부는 4대 은행 중 하나인 The Bank of Alexandria의 정부 지분 매각작업을 진행 중임.
 - 한편 여러 금융개혁 입법의 결과로, 2004년 이집트는 정부간 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자금 세탁 분야 Black list에서 삭제된 바 있음.

3. 제조업

□ 제조업 개황

- 국가 GDP의 약 18%, 고용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는 이집트 제조업은 식품가공 및 섬유·의류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기타 야금, 시멘트, 비료, 자동차 산업 등이 발달함.
- 이집트 제조업은 1999년 이후, 경제침체와 이집트 파운드화의 급격한 평가절하로 인해 원부자재를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극심한 침체를 겪었으나 최근 환율 안정, 수출수요 증가, 인구 증가 및 국내 경기 회복 등으로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한편 이집트 정부는 지난 2003년 대규모 천연가스 유전이 발굴되면

이집트

서 석유화학산업 발전 계획을 야심 차게 발표하여 폴리프로필렌, 알킬벤젠, 질소비료 등의 생산 확대를 적극 도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IT산업 육성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표 III -3> 이집트 주요 산업생산(2002~04년)

단위 : 천톤, 대

구 분	2002	2003	2004
방적사	290	265	260
기성복(백만벌)	271	277	286
자동차	83,539	87,908	92,651
세탁기	795,000	839,000	887,000
냉장고	570,000	800,000	846,000
알루미늄	246	248	254
시멘트	26,583	26,750	29,500
비료	11,620	11,655	11,959
담배(십억개)	69	71	72

자료: EIU Viewswire

□ 침체된 섬유산업은 민영화 등 구조조정 필요, 의류 산업은 QIZ 체결로 호황 예상

- 섬유, 의류산업은 이집트의 고급 면화 생산 및 풍부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 기간산업임. 그러나 주로 공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섬유산업은 최근들어 인력과다, 기술혁신 부진 및 품질 관리 실패로 침체기를 겪고 있음.
- 반면, 90% 이상이 민영화된 의류 산업은 풍부한 노동력과 인근 산유국으로부터의 화학수지 공급 원활 등의 장점을 활용키 위한 외국인 투자 증대로 수출용 프랜차이즈 생산을 중심으로 호황을 구가하고 있음

Ⅲ 주요 산업

- 최근에는 지난 2004년 12월 이스라엘 및 미국과 체결한 QIZ 협정을 통해 對美 수출의 지속적인 증대가 기대되고 있음

□ 자동차 산업 : 2003년 이후 불황탈출

- 이집트 자동차 산업은 1980년대 말까지, 정부 소유 기업인 Nasco (Al Nasr Automotive Manufacturing Company)에 의해 외국기업과의 주요 부품공급 기술 제휴 형태의 조립생산 중심으로 독점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1990년대 경제개혁으로 현재는 외국기업과의 Joint Venture 형태인 약 10개 기업이 18개의 생산 공장에서 약 15,000명의 노동인력을 고용하여 생산 활동을 벌이고 있음.

※ 이집트에 진출한 주요 자동차 회사 : Suzuki, Daimler Chrysler, PSA Group, BMW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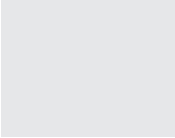
- 이집트 자동차 산업은 1999년 전후 시작된 경제 불황의 여파로 불황을 겪은 바 있음.

■ 승용차 판매는 1998년 72,000대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2년 46,750대까지 감소한 바 있으나, 2003년 이후 급속한 회복세를 보여 2004년 73,600대로 증가한데 이어, 2005년에는 약 100,000대 판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2005년 한국산 자동차의 수입차 판매시장 점유율은 약 40%

- 1993년 상용 자동차의 수입금지가 해제된 이후, 외국 자동차 회사들은 이집트 정부가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부과한 높은 수입관세를 피하기 위해 Joint-venture 형태로 이집트 자동차 생산 시장에 경쟁적으로 진출하였음.

- 그러나 부유층을 중심으로 한 수입차 수요와 2004년 단행된 수입관



이집트

세 인하(대형차 140%→40%, 중·소형차 55%→40%) 조치 등으로 수입차가 전체 자동차 판매시장의 상당부분을 점유하고 있음 (2003년 약 40% 기록).

□ 석유화학 산업 :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중점 육성

- 이집트 정부는 천연가스 생산량 증가를 수출 증대로 활용하기 위해 2003년 초 석유화학산업 발전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동 계획은 국내외 자본 약 100억 달러를 투자하여 14개 석유화학 단지를 건설, 향후 20년간 약 70억 달러 상당의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여 30억 달러의 수입 대체 및 40억 달러의 수출효과를 창출하고 1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 한다는 야심찬 계획임.
- 현 이집트 석유화학 산업은 약 3억 8천만 달러 규모로 연간 57만톤 가량의 각종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소규모 단계이나, 상기 발전계획의 1단계인 2008년까지 약 31억 달러를 투자하여 획기적인 발전 토대를 마련 할 예정임.
- 특히 폴리프로필렌, 알킬벤젠, 질소비료, 폴리비닐, 암모니아 생산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예정으로, 지난 2005년 12월 첫 석유화학 플랜트 발주 건인 약 4억 달러 규모의 알킬벤젠 생산 플랜트 건설 건을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하에, 우리나라 GS 건설에서 수주하는 데 성공하였음.
- 향후, 이집트 석유화학공사(ECHEM ; Egyptian Petrochemical Holding company)가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 동 석유화학 발전계획에 의거 천연가스 처리, 석유화학 공장건설, 발전소 등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들이 잇따라 발주될 것으로 예상됨

III 주요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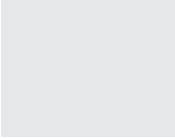
- 우리기업들이 이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주 할 수 있도록, 관련 입찰정보지원, 금융 솔루션 제공 등 수주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IT 산업 : 이집트의 '아프리카 IT 허브' 구상

- 이집트의 IT 산업 육성은 나지프 신임 총리가 주도하고 있음. 나지프(Nazif) 총리는 캐나다에서 컴퓨터 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IT 전문가 출신으로 최근 이집트 정부의 '아프리카 IT 허브' 구상을 이끌고 있음.
- 이집트 정부는 매년 10억달러 정도를 IT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고 있음.
 - 또한 아직까지 걸음마 수준인 이집트의 IT 산업 육성을 위해 '1가정 1PC 보유', '전학생의 PC 보유' 정책 등 인력양성 및 각종 훈련 프로그램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 이에 힘입어, 이집트 IT 산업은 2002년 이후 연평균 30% 이상의 고성장을 거듭하고 있음.
 - 특히 인터넷과 휴대전화 가입자는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2004년 말 현재 인터넷 사용자는 380만 명으로 전년대비 67% 증가를 기록하였으며, 휴대전화 사용자도 2004년 7월말 현재 690만 명으로 9.95%의 보급률을 보여, 전년대비 110% 증가를 기록한 바 있음.

□ 제약 산업 : 정부 가격규제로 인한 이윤 및 생산량 감소

- 이집트는 중동·아프리카 지역 의약품 공급의 약 30%를 차지하는 지역 내 주요 의약품 생산국임.
 - 현재 이집트에는 약 68개에 달하는 제약 회사와 580여개의 다국



이집트

적 의약 업체가 진출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음.

- 그러나, 이집트 의약산업은 업계의 가격인상 요구에 정부가 불응하면서 이윤이 감소하고 있으며, 아울러 최근의 이집트 파운드화 평가 절하로 유럽이나 미국으로부터의 의약품 원료 수입단가가 높아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생산량이 감소하는 추세임.

4. 자원개발 산업

□ 주요 원유 생산국가이며 천연가스 생산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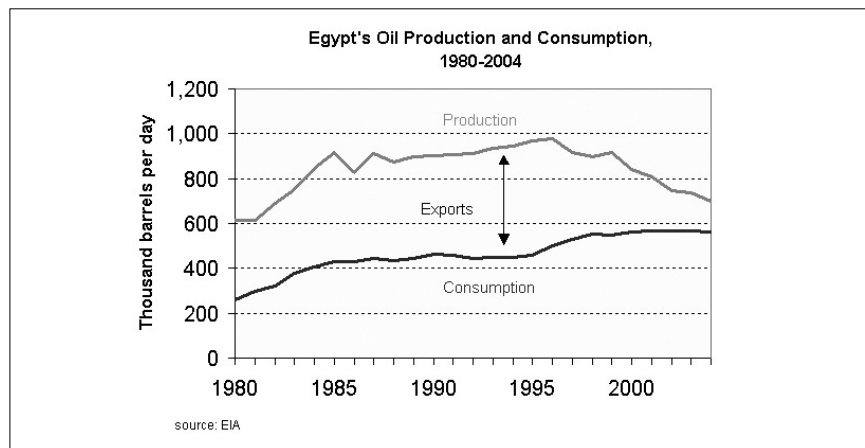
- 이집트는 주요 산유국이며 최근의 메이저급 유전 발굴에 힘입어 국가 에너지 사업의 새로운 동력으로 발전하고 있는 천연가스의 주요 생산국임.
- 동시에 이집트는 스웨즈 운하 운용 및 걸프만과 지중해를 통과하는 Sumed (Suez-Mediterranean) Pipeline 운용을 통해 중동지역 생산 원유 수송에 큰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
- 이집트의 원유 매장량은 약 36억 배럴로, 현 일일 산출량을 가정할 때 향후 약 15년 내외를 생산 할 수 있는 규모임.
 - 일일 생산량은 전체 원유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스웨즈만 지역 유전 고갈로 인해 1996년 922,000 barrels/day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여 2004년 594,000 bbl/d를 기록하고 있음.
- 정부는 최근 유가 급등에 따라, 원유 수출을 증진코자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내수용 석유제품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고, 발전용 연료를 최근

Ⅲ 주요 산업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는 천연가스로 전환하는 한편, 자동차용 대체 연료로 CNG(Compressed Natural Gas) 사용을 늘리는 등 국내 석유 수요를 감소시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인구증가에 따른 기본 수요량 증가 및 생산량 감소로 수출량 증가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그림 Ⅲ-1> 이집트 석유 생산량 및 소비량 추이



- 신규 유전 탐사는 공기업인 EGPC (Egyptian General Petroleum Corporation)와 외국 에너지 기업과의 제휴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지금까지 다국적 에너지 기업 BP社와 이태리 Eni社 등이 스웨즈만을 중심으로 한 EGPC와의 합작 탐사사업을 주도해 왔음.
- 최근 이집트 정부는 고갈되고 있는 스웨즈만 유전의 대체 탐사지역으로 리비아 접경의 서부사막 및 북부 지중해 지역을 주목하고 신규 탐사 프로젝트를 발주 하고 있음.

이집트

□ 천연가스 : 새로운 주력 수출산업으로 중점 육성

- 1990년대 초반 이후, 적극적인 탐사작업 전개로 나일강 삼각주 및 서부 사막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유전 발굴에 성공,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천연가스는 이집트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 2004년 말 현재 확인된 천연가스 매장량은 전 세계 매장량의 1%에 해당되는 66조 입방피트(cubic feet)이며, 잠재 매장량은 120조 입방피트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표 Ⅲ-4> 이집트 천연가스 주요 통계(1999~04년)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확인매장량(조Cu. ft.)	36.4	44.6	53.1	55.9	59.4	66.0
연간생산량(백만톤)	11.9	14.6	18.4	19.5	21.3	23.6
가스관 길이(km)	9,556	11,769	12,844	13,380	14,120	14,292

자료: Ministry of Petrol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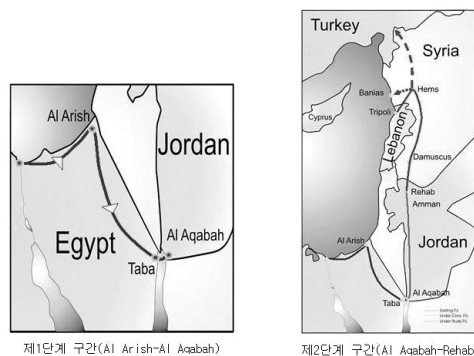
- 천연가스 생산량의 65% 이상을 내수 전력생산에 사용하고 있으나, 수출 증대에 활용키 위해 이집트 정부는 2003년, Aqabah만 해저관을 통해 요르단 천연가스 수출을 시작하였음.
- 요르단 정부와는 2003년부터 30년간 매년 11억 입방피트 규모의 천연가스 수출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본 수출계약은 천연가스 수출 규모면에서 볼 때 비교적 작은 규모이지만, 이집트 정부는 향후 동해저관을 통해 시리아, 레바논, 사이프러스 및 터키 까지 수출 시장을 넓혀 나간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음.

Ⅲ 주요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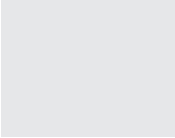
<참고 Ⅲ> 이집트-EU가스관 연결 사업

- 이집트는 2003년 7월, 북부 시나이 반도의 Al Arish와 요르단 Al Aqabah의 화력발전소를 연결하는 총 연장 264km 규모의 제1단계 가스관 공사를 완료하여 가스 수출국 대열에 합류함.
- 동 공사는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3국 정부가 2006년 총 10억 달러를 투자하는 이집트~요르단~시리아 아랍가스관 프로젝트의 일부임. 현재 Al Aqabah~Rehab 발전소간 370km 구간의 제2단계 구간 공사가 막바지 작업 중임.

아랍 가스관 프로젝트 구간별 현황



- 이집트 정부는 2007년까지 동 가스관을 터키, 레바논, 사이프러스까지 연장하여 불가리아, 루마니아, 그리스 등 EU 국가에 진출할 야심 찬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음.
- 한편, 이집트와 이스라엘 정부는 1990년대 중반부터 Al Arish ~ 이스라엘 해안간 가스관 건설 계획을 추진하여 왔으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관계 악화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함.



이집트

.....

- 그러나, 2005년 2월 양국은 컨소시엄 형태로 East Mediterranean Gas corporation사를 설립기로 합의한데 이어, 동사와 Israel Electric Corporation사 사이에 2006년부터 15년간 25억 달러 규모의 천연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음.
- 아울러, EGAS(Egyptian Natural Gas Holding)사도 러시아의 Gazprom사와 Al Arish~이스라엘 Ashkelonrks 130km 규모의 해저 파이프 건설 및 생산, 운송, 마케팅 등에 대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향후 이집트의 천연가스 수출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 석탄 : 대규모 증산을 계획 중

- 주로 시나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이집트의 석탄 매장량은 대략 5천만 톤 규모로 추정되고 있음. 심층 탄광인 시나이 지역 Maghara 탄광은 1967년 전쟁 시 폐쇄된 바 있으나, 광범위한 재개발과 함께 1996년 재개장하였음.
- 그러나 현재 연간 생산량 125,000톤을 5년내 600,000톤으로 증가시키겠다는 이집트 정부의 석탄산업발전 계획은 낮은 수준의 석탄 질 등을 감안할 때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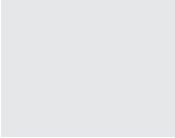
5. 농업

□ 농업은 여전히 주요한 기간 산업

- 면화 중심의 이집트 농업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5년 약 25%에서 2005년 약 14% 수준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가 전체고용의 28%를 차지하는 주요 기간산업임.

□ 원면(Cotton) : 생산량 감소추세 속에서 품질 경쟁력은 유지

- 이집트는 세계 최고 품질의 Premium-long, Extra-long Staple Giza 원면의 주요 생산국으로, 연간 20만 톤의 면화를 생산하여 그 중 60%인 12만 톤을 수출하고 있음.
- 약 40년간 정부가 독점해온 면화 생산은, 고용인력 과다, 수출가격 급등락, 낮은 정부 구매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생산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정부는 면화 농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지난 1994년 면화 거래 자유화를 위한 3개 법령을 발표한바 있음
 - Int'l Cotton Trade Law : 정부 독점 원면 교역권 자유화 조치
 - Cotton Exchange Market Law : 자유거래 시장 규정 설정
 - Cotton Exporters Association Law : 원면수출업자 권익보호 및 방적업자들과의 분쟁해결을 위한 법규
- 이집트 원면수출은 전통적으로 독일, 스위스, 이태리, 그리스 등 유럽시장이 주 대상이었으나 최근 들어 한국, 인도, 일본 등 아시아권 수출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



이집트

□ 밀 : 수입 비중 증가

- 이집트는 빵을 주식으로 하는 사회로, 밀에 대한 식량 의존도가 높은 편임. 연간 밀 생산량은 630만 톤에 달하나 자급률은 55%에 불과하여 매년 막대한 양의 밀을 수입하고 있음.
- 주 수입국은 미국, 프랑스, 호주 등지이며 최근 대미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비중이 늘고 있음. 한편, 밀 수입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시리아, 터키, 호주 등과 원유, 천연가스와의 물물교환 방식의 수입을 추진하고 있음.

□ 기타 작물

- 옥수수 : 연간 생산량이 740만 톤 규모로 주요 식량작물 가운데 가장 많은 수확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인근국가로 수출되고 있음.
- 쌀 : 연간 600만 톤 생산. 터키 등에 수출하고 있으며, 최근 WTO 농산물 개방 협상에 쌀 수출국으로 적극 참가하여 미국 등 주요 쌀 수출국의 입장에 적극 동조하여 일본과 한국 시장 진출을 도모하고 있음.

IV. 외국인투자 환경

1. 외국인투자 정책 및 제도

가. 외국인투자 정책

- 이집트의 외국인 투자정책 변천 과정은 1954~70년 동안의 나세르 시대와 1970~81년 동안의 사다트 시대, 그리고 1981년 10월 이후의 무바라크 시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음.
- 스웨즈 운하 등 주요 산업시설의 국유화로 대표되는 나세르 시대에는 외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 민족자본 우선론 등으로 인해 이집트로의 외국인 투자는 극히 부진하였음.
- 사다트(Sadat) 시대에 이르러 친미 정책으로 급선화하는 등 대외정책에서 일대 전기를 맞았음.
 - 1974년 과감한 문호개방정책(open door policy)을 실시하였고, 이에 힘입어 외국인 투자는 크게 활기를 띠었으며 미국의 대 이집트 경제·군사 원조가 급격히 확대되었음.
- 무바라크(Mubarak) 대통령도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현 정부가 당면한 대내외적 문제의 해결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즉,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는 침체된 국내경제의 회복이 선결 과제이

이집트

나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 등으로 야기된 투자재원 부족 등을 감안할 때 외국자본의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채무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서방제국과의 관계를 더욱 증진시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 이러한 배경으로 인하여 이집트 정부는 문호개방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1997년 투자법을 개정하여 허가절차 및 요건 완화 등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에 더욱 힘쓰고 있음.

〈부록 1. 이집트 투자법(Law 8) 참조〉

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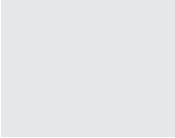
- 특정산업이나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수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나, 조세 인센티브는 제공하지 않음.
 - 이전에는 대부분의 인센티브가 조세 인센티브의 형태를 띠었으나, 2005년 6월 국가세제개편에 따라 통과된 새로운 조세법(Law 91)은 법인세를 40%에서 20%로 낮추는 대신 투자법(Law 8)에 의해 제공되던 조세 인센티브를 없앴.
- 조세 인센티브를 대신하여 이집트 정부는 2004년 후반 수입관세개혁을 시행함.
 - 2004년 7월 출범한 나지프(Nazif) 내각은 수출입 촉진 및 WTO 가이드라인 충족을 위해 관세를 파격적으로 인하하고 관세부과대상 품목 분류체계를 27개에서 6개로 축소하는 한편, 통관 서비스 관련 수수료도 없앴. 특히 수출을 위한 기계류 수입의 경우 낮은 관세율을 적용함.

IV 외국인투자 환경

- 토지 및 인프라 관련 편의 제공과 보조금 지급 또한 중요해짐. 투자법 (Law 8)은 Beni Suef에서 Aswan사이에 해당하는 북부 이집트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토지와 인프라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음.
- 7개의 자유무역지대에는 광범위한 산업에 대하여 인프라와 부동산 인센티브, 그리고 수입면세특권을 제공함. 그 중 한 자유무역지대는 예술, 미디어 제작 및 관련 서비스 기업들에게만 제한되어 있음.
- 투자자들은 또한 생산품의 최소 50%를 수출하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투자청(the General Authority for Investment and Free Zones: GAFI)에 민간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수출 관련 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특별경제구역법 (Law 83)이 2002년에 제정됨에 따라, 특별경제구역(SEZs)에도 유사한 인센티브가 제공됨. 특별경제구역법은 스웨즈 운하와 델타 시 부근의 4개의 구역을 특별경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 특별경제구역의 또 다른 유인책은 빠른 통관 절차로, 2002년에 스웨즈 운하 특별경제구역 인근에 세워진 Sohghna항에서는 통관에 걸리는 시간이 48시간으로 단축되었음.
- 이집트 특별경제구역은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성공적인 투자구역을 모방한 것이며, 조세구조상으로는 수출을 장려하나, 특별경제구역에서 국내시장으로 판매하는데 대한 제한은 없음.

2) 일반적인 인센티브

- 이집트는 대부분의 주요한 비 아랍 국가들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



이집트

고 있으나, 이 협정들은 이자 및 로열티 지급에 대한 과세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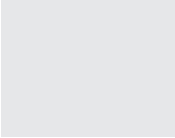
- 투자법(Law 8)의 적용을 받는 기업들은 근로자의 경영참여의무 규정에 대한 예외로 인정됨.
 - 정부는 2002년 5월 투자법(Law 8)을 개정하면서 조항 제20조를 추가하였는데, 이 조항은 기업들의 법인설립과 대출 및 담보계약과 관련하여 인지세, 공증료, 등록비 등을 5년 동안 소급하여 면제해주고 있음.
- 신규기업 설립을 위한 토지계약 등록의 경우에도 각종 세금 및 수수료를 면제받음.
 - 투자법(Law 8)에 따른 기업들은 정부 허가 없이 자동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음. 인센티브는 오직 총리명령으로만 취소되는데,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충족해야할 조건 및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 한해서 정부기관의 추천을 통해 이루어짐. 인센티브가 취소된 기업은 30일안에 행정법원에 항소할 수 있음.

3) 특정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 투자법(Law 8)은 어떤 산업 부문이 조세 인센티브 제공 대상에 적합한지를 밝히고 있으며, 2000년 4월 발효된 총리령 740은 투자법(Law 8)이 더욱 많은 종류의 산업에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개정하였음.
 - 그러나 2005년 6월에 통과된 새로운 조세법(Law 91)에 따르면 모든 조세 인센티브는 삭제되었으며, 향후 조세 인센티브가 지속될지 여부는 불투명함.

IV 외국인투자 환경

- 총리령 740호에 의해 지원되는 산업은 다음과 같음.
 - 발전소 건설
 - 데이터베이스 개발 및 제조, 전자정보시스템, 네트워크, 위성, 유·무선통신(모바일 네트워크 제외) 등 원격통신에 대한 모든 투자
 - 기술이전 프로젝트를 위한 기술구역 설립 및 운영
 - 천연가스 배급 프로젝트
 - 지하철의 설계 및 건설, 경영 등
 - 지하도의 설계 및 건설, 경영 등
 - 정부가 선정한 신도시의 설계 및 건설
 - 각종 신용등급 평가기관
 - 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
 - BOT(build-operate-transfer) 시스템에 의한 모든 프로젝트
- 총리령 740호는 특히 Law 1(1973)과 Law 59(1979)에 의해 보장되던 호텔 및 관광지에서의 여행사, 레스토랑, 기념품 판매점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관련 조항들을 삭제하였음.
- 투자법(Law 8)의 적용을 받는 산업은 다음과 같음.
 - 황무지 개간 및 경작
 - 동물, 가금류 및 어류 생산
 - 공업 및 광산업
 - 호텔 등 숙박업
 - 관광 리조트 및 관광 교통수단
 - 냉장차에 의한 식품운송
 - 농산물, 공업제품, 식품 등의 냉장 보존 및 곡물 저장고
 - 항공, 육상교통 및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비스



이집트

- 국제 해상교통
- 석유 탐사 및 시추

4) 지역적 인센티브

- 이집트 정부는 경제적으로 소외된 지역인 이집트 북부지역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조세를 제외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함.
 - Beni Suef, Minya, Sohag, Assiut, Luxor and Aswan 지역에 프로젝트를 설립하는 이집트인이나 외국 투자자 모두에게 인프라가 구비된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함. 단, 프로젝트의 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함.
- 또한, 이집트 정부는 카이로 외곽 및 기타 원거리에 위치한 인구가 희박한 지역에 총 19개의 산업투자구역인 신도시(New Communities)를 지정함.
 - 신도시에서 시작하는 프로젝트는 Law 59 및 Law 7에 의해 인센티브를 제공받으며, 이를 위해 투자자는 해당 신도시의 기관에서 설립 및 운영 허가를 취득해야 함.
- 신도시에서 제공되는 인센티브들은 다음과 같음.
 - 인프라 네트워크에 대한 무상 접근
 - 각종 건축자재 제공 및 공급 물품에 대한 신속한 허가
 - 토지 및 재산에 대한 무료 등록
 - 기계류 및 생산자재에 대한 수입면세
 - 근로자에 대한 주거 및 커뮤니티 시설 제공
- 프로젝트의 사후 확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인센티브가 보장되지 않음.

IV 외국인투자 환경

- 2005년 새로 도입된 조세법(Law 91)의 전체 의미는 아직 불확실하나, 투자법(Law 8)에 의한 지리적 위치에 근거한 조세 인센티브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5) 수출 인센티브 및 특별구역

- 조세 인센티브의 철폐를 만회하기 위해, 2005년 6월에 통과된 새로운 조세법(Law 91)은 수출로 인해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율을 32%에서 20%로 낮추기로 하였으며 이는 2006년부터 시행됨.
- 정부는 수출 보조금을 거의 지급하지 않으나, 2000년 9월부터 1년간 소규모 쌀 수출에 대해서 총 1천 9백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 적이 있음.
- 또한, 통상산업부는 섬유, 가공식품을 포함한 특정부문의 수출제조업자에 대해서 조세환급의 형태로 수출에 대한 금전적 보조를 해줌.
- 2004년 이집트 정부는 그간 논란이 되었던 총리령 506호를 철폐하였음.
 - 이 명령은 모든 수출 기업과 관광업 관련 기업들로 하여금 외화수입의 75%를 개별거래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집트 지역은행에서 공식 환율에 따라 이집트 파운드화로 바꾸도록 하였음. 불공정하고 구시대적인 보호조치로 여겨져 왔던 이 명령의 철폐는 여러 산업 조합들로부터 환영을 받음.

다. 외국인투자 절차 및 제도

1) 기업형태

이집트

- 현행법상 이집트의 회사형태는 주식, 유한, 합자·합명회사로 구분되며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법에 따라 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형태로만 설립 가능함.

- 주식회사 (Joint-stock Company)
- 유한회사 (Limited-liability Company)
- 합자·합명회사 (Joint Partnership · Limited Partnership)

A. 주식회사

- 외국인 투자기업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최소 자본금은 E£250 천이며, 투자법 또는 회사법이 준거법인에 설립절차 및 요건이 준거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a. 투자법

- 허가기관 : GAFI
- 수권자본금 : E£250천 이상
- 최초 납입자본금 : 수권자본금의 25%
- 자본금은 외화 이외에 기계, 건축자재 등 현물로 납입이 가능하나, 이 경우 GAFI에 의한 감정 필요
- 세후 순이익의 5%를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적립
- 주주 : 3인 이상
- 이사 :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 이사의 자격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인적사항을 매년 GAFI에 보고
- 노동 : 당기순이익의 10%를 노동자에게 분배

IV 외국인투자 환경

- 경영공개 : 연차재무제표를 GAFI에 제출
- 주식 : 보통주 및 우선주의 발행이 가능하며, 설립 후 2년 이내에
는 주식을 거래할 수 없으며 상장을 위해 증권거래소에 등록하여
야 함.

b. 회사법

- 허가기관 : GOFI
- 수권자본금 : E£ 250 천 이상
- 자본금의 49% 이상을 내국인에게 공개
- 현물출자는 정부가 지명하는 전문가의 감정 필요
- 자본금은 E£로 표시하고, 이집트 국내은행을 통해서 이체
- 합작투자만 허용
- 주주 : 3인 이상
- 이사 :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 이사의 과반수 이상을 내국
인으로 구성
- 노동 : 당기순이익의 10%를 노동자에게 분배
- 경영공개 :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작성, 공개
- 주식 : 보통주 및 우선주의 발행이 가능하며, 설립 후 2년 이내에
는 주식을 거래할 수 없으며 상장을 위해 증권거래소에 등록하여
야 함.
-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투자자산 보호가
용이하며, 경영에 대한 규제가 적은 투자법 Law 230에 근거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임.
-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해서는 경제국제협력부(Ministry of

이집트

Economy & International Co-operation)에 현지법인의 정관, 이사 및 외국인 주주의 신상명세, 은행의 자본금 납입증명서, 이 사들에 대한 경찰의 신원조회 결과를 제출하여 기업설립 승인을 취득해야 함.

- 주식회사 설립승인을 취득한 후 다음 절차를 밟아야 함.
 - 등기 : Property Registry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Commercial Registry under the Ministry of Supply & Home Trade
 - 계약의 공증 : 법률사무소 (Lawyers Syndicate)
 - 조세대장 등록 : Tax Authority
 - 상공회의소 등록 : Federation of Egyptian Chambers of Commerce
 - 정관의 공보 : Official Journal
- 주식의 상장등록을 위해서는 Capital Market Authority의 승인이 필요하며, 투자법에 의해 설립되는 기업은 투자위원회 승인 없이 설립 후 2 년간 주식 쿼터 변경이나 주식매매를 할 수 없음.

B. 유한회사

- 최소 자본금은 E£50 천으로 주주 수는 2~50 명이며 100% 외국자 본도 인정되나, 보험 · 금융 분야는 제외되며 자본금이 E£250 천에 달할 때까지 배당이 불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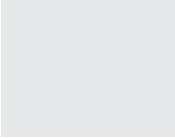
C. 합자 · 합명회사

IV 외국인투자 환경

- 소규모 투자에 적합한 형태로 최소 자본금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내국인 지분이 51% 이상이어야 함.

2) 투자승인 및 회사설립절차

- 모든 외국인직접투자는 공식적인 등록을 하여야 함. 이론적으로는 대부분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승인이 이뤄져야 하나, 실제로는 모든 프로젝트가 합법적 지위를 획득하고 인센티브 제공조건을 충족시키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토과정을 거쳐야 함.
- 이 검토과정은 투자자가 회사의 설립을 투자법(Law 8)에 의할 것인지, 또는 회사설립법(Law 159)에 의할 것인에 따라 달라짐.
- 외국인 투자자가 이집트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GAFI(투자법)나 GOFI(회사법)의 투자승인을 취득하여야 함. 외국인의 투자지분이 51%를 초과하고 임원의 과반수를 외국인이 차지하는 등 독자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투자법에 따른 GAFI의 투자승인 취득이 필수적이므로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는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투자법(Law 8)하의 프로젝트는 사전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오직 통계 및 과세 목적의 통보만을 필요로 함.
- 대부분의 신규투자는 카이로와 알렉산드리아 외곽에서 이뤄지며, 1979년 Law 59에 의해 생겨난 신도시나 보다 최근에 들어와 생긴 자유무역지대에서 이뤄짐.
- 투자법(Law 8)에 의한 보장은 대부분 모든 곳에 적용되며, 대부분의



이집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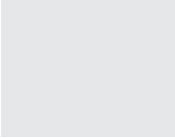
- 외국인 투자가 투자법(Law 8)에 의해 이루어짐. 프로젝트가 법에 의해 보장되는 인센티브 제공 대상사업인 경우 자동적으로 승인이 이뤄짐. 그렇지 않은 경우엔 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데, 특히 군수용품이나 관련 산업, 시나이 투자의 경우 정부의 사전승인이 필요함.
- 투자청은 정관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투자법(Law 8)에 의한 허가를 내주며, 기업들은 별도 승인 없이 자동적으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음.
 - 2004년 12월 카이로 근교에 문을 연 투자청의 투자서비스센터에서는 다른 기관들을 대표하여 각종 신청서류 및 수수료 등을 취급함. 투자청 직원들은 영어를 사용하며, 업무는 효율적이고 기한을 맞추는 편이나, 때때로 늦어지기도 함.
 -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총리나 투자청 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게 됨에 따라 법인설립 기간이 내국인은 3일, 외국인은 10일정도 걸림.
 - 투자법(Law 8)에 따라, 투자자는 기존 프로젝트의 확장, 자본 증자, 제품 구성의 변화, 새로운 제품 도입 등에 정부의 재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자본 유입과 이익금 송금 또한 모니터 되지 않음.
 - 석유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투자법(Law 8)의 적용을 받지 않고 대신 외국인 투자자와 이집트 석유회사(Egyptian General Petroleum Corp.)간의 개별적인 계약에 따라 관리됨.
 - 회사법(Law 159)에 따르는 경우 투자자는 먼저 공업화기구(General Organization for Industrialization: GOFI)에서 신규 생산설비에 대한 설립허가를 받아야함.

IV 외국인투자 환경

- 정부의 산업정책에 있어서의 우선 순위에 따라, 카이로 외곽이나 기타 원거리에 위치한 인구가 희박한 19개의 공업투자 구역들인 신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허가를 받기가 힘들.
- 다음으로 투자자는 회사법(Law 159)하에서 프로젝트를 감독하는 투자청 산하의 기업부(Companies Department)에서 승인을 받아야 함.
- 그 다음에는 국내 기업의 설립절차와 동일함.
- Law 8과 달리 Law 159에 의한 기업들은 최소 E£250 천을 내고 관영 영자 일간지인 Gazett에 발표해야 함.
- 이후 투자자는 건설허가, 설립 및 운영 허가를 해당 신도시에서 받아야 함.
- 해외 대표사무소를 제외한 모든 기업들은 투자청의 허가 취득과 함께 상업등기를 마쳐야 함.
- 회사법(Law 159)을 적용받는 기업들의 회사설립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키기 위해 1996년 총리령 354호가 공표되면서 승인절차가 매우 간소해짐.
- 회사법에 의한 기업들은 기존 프로젝트의 확장이나 자본금 확충, 제품구성 변화 및 신규제품 도입 등의 경우 기업부에 보고해야 함.

2) 기존기업의 인수

- 이집트에서 기업인수는 투자청을 통해서 이루어짐.
 - 그러나 제한적인 노동법과 정확한 기업가치 선정의 어려움 등의



이집트

문제로 외국기업의 인수는 비교적 드문 편임. 2003년 3월에 통과된 새로운 통합노동법에 따르면, 인수자는 기존기업의 피고용자들을 계속해서 고용해야만 함.

3) 건설 및 관련 허가

- 모든 관련 부처들이 투자청에 사무소를 열어 외국인 투자자로 하여금 손쉽게 이집트 규제 관련 정보를 얻고, 필요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건설 허가는 지방 정부 혹은 신도시의 관련 기관에서 받아야 함.

4) 부동산의 취득

- 투자법(Law 8)에 의해 정부는 국유지를 투자자들에게 무상으로 배분할 수 있음.
 - 투자법(Law 8)의 적용을 받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외국인 지분의 크기에 상관없이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고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그러나 시나이 반도는 안보상의 이유로 Law 56에 의해 제외됨.
- 아랍 국적의 외국인은 이집트의 도시 내에서의 토지취득이 가능하나, 비아랍 국적의 외국인은 Law 230에 따라 도시경계 밖에서만 토지취득이 가능함.
- 이집트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들의 프로젝트의 관리를 위해 이집트에 거주하기를 권장함.
 - 외국인은 주거목적으로 두 곳의 토지를 구입할 수 있으며, 넓이가

IV 외국인투자 환경

4,000 평방미터를 넘거나 역사적인 유적지에 위치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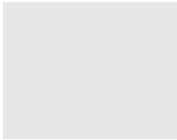
5) 국산물품 사용

- 1993년 대통령령 294호는 제조업자들이 되도록 국산부품을 많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수입부품에 대한 관세를 국산부품 사용량에 역비례하여 부과함.
 - 즉, 수입관세는 국산부품을 더 많이 사용할수록 감소함. 20%의 국산부품을 사용한 최종재의 경우 수입부품에 대해서 25%의 관세 감면이 됨.
 - 국산부품 사용비율이 늘어날수록 감면 폭이 점점 늘어나, 국산품을 85% 사용하게 되면 75% 혹은 그 이상의 관세감면이 주어짐.
- 2000년 대통령령 429호는 국산부품의 사용비율이 최소 60%가 되는 경우 최고 90%까지 세금을 감면해 주도록 하고 있음.

6) 외국인투자 유관기관

A. 투자청(General Authority for Investment Free Zones: GAFI)

- 투자부(Ministry of Investment) 산하기구로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음.
 - 투자법(Law 230, 1989)에 의한 투자 프로젝트의 승인, 기승인 프로젝트의 증설, 생산제품 변경, 신제품 생산, 자본금 회수, 이익금 송금 등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제반 승인업무 등
- 또한, 투자를 위한 부지 분배, 기계 및 장비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 등의 권한을 가지며, 외국인 투자자가 정부의 제반 행정처리 지연 등으



이집트

로 애로를 겪게 될 경우에는 정부 관련부서와 업무조정을 통하여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기도 함.

B. 공업화 기구(General Organization for Industrialization : GOFI)

- 공업부(Ministry of Industry) 산하기구로 회사법(Law 159)에 의한 투자프로젝트의 승인 및 기존 프로젝트의 증설, 변경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함.

2. 외국인투자 여건

가. 무역 및 관세제도

1) 무역 제도

□ 개 황

- 이집트는 연간 100억 달러 내외의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주도하의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IMF 권고에 의거한 시장개방 정책에 따라 수입자유화 및 지속적 관세인하를 추진하는 등 매년 수입시장 개방 폭도 확대하고 있음.
- 이집트는 다양한 형태의 경제협력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음
 -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 COMESA) 회원국으로 역내 국가간 자유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음

IV 외국인투자 환경

- EU와는 FTA에 준하는 이집트-EU 협력조약(Egypt-EU 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하여 2004년 6월 정식 발효되었음
 - 미국-이스라엘-이집트간 체결한 QIZ 협정을 통하여 대미수출시 FTA 체결에 상응하는 면세혜택을 부여받고 있음.
- 주요 수출품은 석유, 천연가스, 원면, 섬유제품, 면화, 감자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기계류, 차량, 철강, 곡물류 등임.

□ 수입시장 개방 현황

- 2002년에 의류수입 금지를 전면 해제하면서 의료용품, 산업용원부자재 등 67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율을 인하하였으며, 2003년 3월에도 공업원료, 생필품 및 일부 전자제품, 디지털 위성방송수신기 등 23개 품목에 대해 2~30% 범위로 관세율을 인하 조정하였음.
- 2004년 1월에는 미국정부가 WTO에 이집트를 섬유·의류에 관한 불공정무역 조장국으로 제소하자, 황급히 섬유·의류 및 관련 원부자재, 기계류의 수입관세를 대폭 인하하였음.
 - 특히 그 동안 국제적인 비난을 받아왔던 의류에 대한 종량세를 폐지하고 종가세로 전환하는 한편, 자국의 섬유·의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섬유·기계류 및 부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철폐함.
- 2004년 9월에는 관세 부과를 위한 상품 카테고리를 종전 27개에서 6개로 단순화하는 한편, 6,500개 품목의 관세율을 평균 40% 인하하는 파격적인 관세율 인하조치를 단행했음.
 - 동 조치로 평균 관세율은 종전 14.6%에서 9%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최고관세율도 104%에서 40%(1600cc 이하 소형 자동차)로 인하됨.

<참고 IV> 이집트의 수입개방 및 관세 인하현황

- 86.7월 수입 금지품목 지정(210개)
- 89.1월 잠정 수입금지 품목 지정(68개)
- 91.6월 수입 금지품목 축소(210→105), 잠정 수입금지 품목 폐지
- 92.8월 수입 금지품목 축소(105→72), 사전 수입허가품목 축소(55→9)
- 93.7월 섬유, 농산물 등 26개 전략상품 제외 전품목 수입개방 및 관세인하
- 94.2월 최고 관세율 80% 에서 70%로
- 96.10월 최고관세율 55%로 인하
- 97.7월 최고관세율 50%로 인하
- 98.1월 섬유류 중 의류를 제외한 전품목 수입금지 해제
- 98.10월 최고관세율 40%로 인하
- 99년 중 최고관세율 30%로 인하예정이었으나 미 실시
- 02. 1월 의류 수입금지 해제
- 03.3.17 21개 품목 관세인하 단행
- 04. 1월 740개 섬유류 관련품목 관세율 인하 섬유류에 대한 대폭적인 관세조정
- 04.9.17일 6,800개 품목 관세인하

□ 수입관리제도

- 이집트는 1986년 210 개의 수입금지 품목을 지정한 이래 지속적으로 수입금지 품목을 축소하여 현재 공식적인 수입금지 품목은 없음.
- 그러나 중고 자동차는 사실상 수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의약품 및 의료기기, 화장품 등은 별도의 수입 승인 및 안정성 검사를 거쳐야 함.
- 약 1,500개 상품에 대해서는 국제인증규격이나 품질검사 결과를 요구하고 있으며, 아랍어 라벨 또는 카탈로그 의무화 등의 비관세 장벽이 존재함.

2) 관세 제도

□ 개 황

- 현재 이집트는 상품 분류방식으로 HS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수입관세는 종가세 및 CIF 금액 기준으로 산정됨.
- 현행 평균 관세율은 9%이며 최고관세율은 40%임.
- 그러나 국내산업보호를 위하여 와인(3,200%), 맥주(1,200%)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음.

□ 통관절차

- 수출입거래는 통상 L/C를 원칙으로 하며 물품선적 후 한국에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항까지의 항해일 수는 약 35~40일정도 소요되며 통관 후 물품인수까지 20일 정도가 추가 소요됨.

이집트

- 수입통관 시에는 먼저 CUSTOM HOUSE 출입 승인을 획득한 후 컨테이너 개봉 및 검사를 하고 관세 및 제 세액이 확정된 후 관세를 납부하고 물품을 인수함.
- 필수 선적서류는 Commercial Invoice(4부), B/L, 원산지증명서, Packing List이며, 수입업자는 L/C 개설을 위해 통상 자금원과 Proforma Invoice를 거래은행에 제출해야 함.
- 그러나 이집트 세관은 언더밸류 관행에 대한 규제 목적으로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Invoice 가격에 10~30% 정도를 증액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음.

3) 자유무역지대

□ 개 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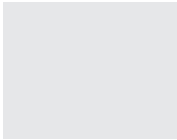
- 자유무역지대는 고도의 기술집약산업을 유치하여 대중동 수출을 위한 제조업 기반을 구축하고 신규고용을 창출할 목적으로 설립하였음.
- 자유무역지대는 투자부문의 성격에 따라 공적 자유무역지대(public free zones)와 사적 자유무역지대(private free zones)로 나누어짐
 - 후자는 수송, 원료조달 등의 면에서 공적 자유무역지대로의 입주가 어렵거나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산업을 대상으로 하며 부여되는 특혜는 전자와 동일함.
- 자유무역지대 입주 제조업체 생산품의 약 80%가 제3국으로 수출되고 있음
 -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하지 않았어도 원유개발 및 천연가스, 광산개

IV 외국인투자 환경

발을 위한 투자시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한 업체들과 같은 특혜를 받고 있는데 동 특혜 수혜를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현재 Nasr City, Alexandria, Port Said, Suez, Ismailiya, Damietta, Sixth of October City 의 7개 공적 자유무역지대가 운영되고 있음.

- NASR CITY PUBLIC FREE ZONE : 카이로 국제공항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로 단순 조립 및 항공운송이 가능한 경공업 제품이 주로 생산되고 있음.
- ALEXANDRIA PUBLIC FREE ZONE : 지중해 연안 이집트 최대의 항구 도시인 ALEXANDRIA에 위치하며 방직, 석유화학, 야금 식품가공, 원유정제, 지류생산, 해운 프로젝트 업체 중점 입주
- PORT SAID PUBLIC FREE ZONE : 스웨즈 운하 입구에 위치하며 유럽 및 북서부 아프리카 중계상업 무역기지로 부각되고 있음.
- SUEZ PUBLIC FREE ZONE : 홍해 및 스웨즈 운하 남단에 위치하며 아랍,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진출이 용이한 지역으로 원유정제, 비료공장, 시멘트, 건축자재, 화학제품, 소형조선소, 방직산업이 밀집해 있음.
- ISMAILIYA PUBLIC FREE ZONE : 온화한 기후 및 수려한 경치로 관광명소로 유명하며 카이로와 스웨즈 운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델타, 카이로, 시나이 및 기타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교통 중심지이며 전자, 방직공업이 발달해 있음.
- DAMIETTA FREE ZONE : 지중해 연안의 공업지대로 가구, 섬유, 천연가스 정제업이 중심산업임.
- PUBLIC FREE ZONE FOR THE MEDIA PRODUCTION



이집트

CITY : 2000년 2월 설립된 자유무역지대임.

- 2003년에 처음 생긴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s)은 스웨즈 운하, Rosetta, 나일강 삼각주 근처에 계속 개발되고 있으며, 중앙 집중식 통관절차를 제공하는 등 자유무역지대와 유사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 호주의 광산업체인 Gippsland는 2005년 1월 투자청 GAFI의 승인을 받아 민간 자유무역지대 내의 Abu Dabbab 탄탈(tantalum) 광산에서 연간 2백만 톤을 채굴할 예정임.
 - 탄탈(tantalum)의 매장량이 약 4천만 톤으로 추정되므로, Gippsland의 프로젝트는 수십 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이 특별경제구역은 또한 근처의 9천8백만 톤 규모의 Nuweibi tantalum 광산으로 확대될 예정인데, 정부는 30년간의 광산 면허를 제공하며 다시 30년간 연장이 가능함.
- 민간자유무역지대(private free-trade zones)는 다음과 같은 여러 혜택을 제공함.
 - 플랜트 및 장비에 대한 수입 무관세
 - 프로젝트 소모품에 대한 수입 무관세
 - 판매세 면제
 - 일반적 및 기업 특성에 따른 기업이익에 대한 세금 면제
- 새로운 조세법 Law 91이 어떤 방식으로 세금감면을 할지는 아직 불분명함.

□ 자유무역지대 투자승인

- 이집트의 자유무역지대 투자도 내륙투자와 같이 투자법(Law 8)의 적

IV 외국인투자 환경

용을 받음.

- GAFI(General Authority for Investment and Free Zone)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GAFI 와 자유무역지대 관리기관 등으로 구성된 기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자유무역지대 투자위원회에서 승인하며, 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1~4개월로 일반지역에 비해 다소 빠른 편임.
- 또한 자유무역지대 투자위원회는 공장의 신규, 준공 및 가동 허가, 전화 등의 설치, 토지임대 등 투자와 관련된 제반 업무에 대해 독자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 토지임대료(년) : U\$3.5/m², 창고의 경우는 U\$7/m²

□ 투자우대조치

-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내국세법 적용 제외
- 제품의 수출입에 대해 무역규제대상에서 제외
- 외환관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 자본재, 건축자재, 원료, 제품 등의 수입에 대해 통관절차 및 관세를 면제. 단 자유무역지대와 일반지역의 제품 반출입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통관절차를 거쳐야 함.

□ 의무사항

- 임금 및 급여의 외화 지급
- 중앙은행이 인가한 외국환은행에 외화예금구좌 설치

이집트

- 수출입 상품에 대하여 제품 가격(수입시 CIF, 수출시 FOB)의 1% 미만 납부
- 매년 이집트 투자청에 재무제표 제출

나. 외환제도

□ 환율제도 및 환율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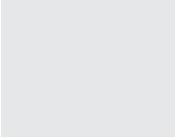
- 이집트는 외환사용 목적에 따라 상이한 환율을 적용하는 다중환율제도를 시행하여 왔으나, IMF의 권고에 따라 이를 단일화하여 1991년 10월부터 단일환율이 사용되고 있음.
-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은행간 외자의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되나, 중앙은행은 엄격한 관리를 통하여 1992년부터 2001년 초반까지는 대미 달러 환율을 E£3.33~3.39로 유지하여 왔음.
- 2001년부터는 환율변동한도($\pm 3\%$)를 설정하고 동 범위 내에서 시장의 수요공급에 따라 환율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지속되는 불경기와 외환부족 그리고 만연하는 블랙마켓으로 공식적인 금융권에 외화가 유입되지 않자 2003년 1월 29일을 기해 시장의 수급상황에 따라 환율이 변동하는 완전 자유변동 환율제를 전격 도입하였음.
- 이와 같은 조치는 관광산업의 부진과 해외송금의 감소, 외국인투자유치의 저조 등 경제적 악재로 외화유동성이 크게 악화되자 블랙마켓 등 비공식부문에 유통되고 있는 외환을 공식채널로 유입하기 위한 조치였음.

IV 외국인투자 환경

- 이라크전 종전 이후 관광수지 및 서비스수지 흑자 확대와 무역수지 적자 감소 등에 힘입어 외환수급이 안정화되어 환율은 2003년 11월 이후 1년 반 동안 달러당 6.17파운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2005년 1월 이후에는 오히려 강세를 보이고 있음.

□ 외환관리

- 이집트는 전통적으로 별다른 외환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나 2003년 6월말을 기해 통합금융법안 및 돈세탁방지에 관한 법안이 제정되면서 대외 송금 외환관리에 일정부분 규제 장치가 마련되었음.
- 동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간 송금과 결제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여 2만5천불 이상의 송금과 결제 시는 신분 확인을 거쳐야 되며 중앙은행에 통보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현금 송금은 엄격하게 제한하여 모든 송금과 예금결제를 은행계좌 보유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하였음.
- 따라서 지금까지 아무런 규제 장치가 없던 대외송금과 결제에 일정 정도의 규제와 감시 추적조사가 가능하게 되어 자금세탁이나 음성적인 자금 유출입 혹은 밀반출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이 결과 이집트는 2004년 9월을 기하여 돈세탁방지에 협조하지 않는 국가에서 제외됨).
- 그러나 이집트는 다른 개발도상국들에 비해 과실송금 등 개인 및 회사소유의 달러를 송금 할 때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은행관계자는 전하고 있음.
- 투자기업의 경우에도 과실송금 시 감사의 회계결과 보고서가 첨부된



이집트

과실송금 신청서를 투자청에 제출하면 72시간 내 허가가 나오며, 이를 은행에 제출하면 송금이 가능함(송금 자체는 승인 조건임).

□ 외국인 투자 기업과 관련된 외환관리

[자본금 투자 및 회수]

- 투자법에 의거 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은 외화로 투자하여 국내시장에서 환전할 수 있으나, 법적 설립에 앞서 특별 계좌를 이집트 은행에 개설하여야 하며 납입된 자본금은 기업이 설립된 후에 사용 가능함.
- 기업의 법적 설립절차가 완료된 후 현지법인의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외화 또는 현지화 계좌를 모두 개설할 수 있음.
- 자본금 회수는 GAFI의 승인이 필요하고, 투자 후 5년 이내에 자본금의 회수는 허용되지 않으며, 1년 동안 회수 가능한 금액은 투자금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외화계좌에 충분한 잔고가 있는 경우/주식 일부를 외화로 매각한 경우/기타 GAFI가 인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 적용을 받음.

[이익금 송금]

- 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이 이익금을 본국으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GAFI의 승인이 필요함
 - 신청서와 함께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세금납입증명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송금은 외화계좌의 잔액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대외차입]

- 대외차입은 국내차입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차입이나 차입조건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대외차입에 대한 원리금 상환도 특별한 허가없이 기업이 보유한 외화계좌의 잔액 내에서 자유로이 지급 가능함.

[외국에 대한 로열티와 비용의 지급]

- 외국기업과의 기술도입계약이 GAFI로부터 승인 받은 경우 외환구좌 잔액 내에서 로열티 및 관련비용 지급 허용

[임금송금]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임금의 50% 한도 내에서 송금 가능

다. 금융제도**□ 개 황**

- 1996년 6월 금융법을 개정하여 은행에 대한 외국인 100% 소유 인정, 이집트 파운드화와 외환구좌 운용 허용, 이자율 자유화 조치 등을 시행함.
- 2003년 6월 통합은행법(Law 88, 2003)을 제정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동 법의 핵심내용은 중앙은행의 독립성 강화와 상업은행에 대한 구조조정 유도 및 중앙은행의 감독권 강화임.
 - 중앙은행의 독립성 강화 : 중앙은행이 수상실 산하에서 대통령 직

이집트

속기구로 변경되어 내각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자적인 통화정책 수립과 운영이 가능해졌음.

- 상업은행에 대한 감독권 강화 : 중앙은행에게 상업은행의 합병이나 통합에 관한 정책수립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민간상업은행이나 국영은행의 고위 간부 임면에 관한 관여 권한과 은행의 부채비율, 구조조정, 투자 상한규정 권한도 부여됨.
- 이에 따라 은행의 특정인에 대한 대출상한선을 은행자본금의 30%로 제한하였으며, 은행 간부들의 소속은행에서의 대출금지, 은행 여신 제공시 충분한 담보 확보 등이 법규화됨.
- 은행 구조조정 유도 : 동 법에 따라 내국계 은행의 경우 5억 파운드, 외국계 은행은 5천만 달러로 최소자본금이 대폭 증액되어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은행간 인수·합병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대형 국책은행간 통폐합과 상업은행의 인수합병으로 향후 60여개 은행이 20여개 정도로 축소될 전망이다.

□ 중앙은행(Central Bank of Egypt)

- 1975년 은행법 개정으로 발권업무, 정부의 대외자산 관리업무, 일반 상업은행 관리·감독, 이자율, 지불준비율, 대출규제 등의 금융정책 수행

□ 일반 상업은행

- 이집트 은행은 상업은행(28개, 1,092개 지점), 산업 및 투자은행(32개, 119개 지점), 특수 은행 등으로 구분
- 4대 국영상업은행이 은행 부문 총자산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상업은행 대주주로서의 영향력도 큼.

IV 외국인투자 환경

- National Bank of Egypt : 무역금융 전담
- Banque Misr : 개발금융 전담
- Bank of Alexandria : 국영기업과 일부 농업부문에 대한 여신 담당
- Bank de Caire : 서비스와 건설부분에 대한 여신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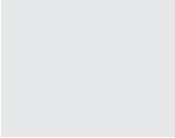
□ 외국계 은행

- 외국은행과의 합작은행 및 외국은행 지점이 있으며, 합작은행은 현지화 또는 외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고, 외국은행 지점은 외환업무 이외에는 이집트 정부와 중앙은행의 인가를 받아 공공 프로젝트와 관련된 채권발행 및 보증업무를 수행함.

라. 조세제도

1) 개 요

- 2005년 6월 新세법(Law 91, 2005)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세제도 대폭 수정
- 법인세율이 종전 32-40% 에서 20% 단일세율로 최고 50% 낮아지는 대신, 종전의 각종 조세감면 사항은 삭제됨.
- 자유무역지대 입주기업에 주어졌던 5~10년 동안의 면세혜택도 사라짐.
- 신법에 따라 납세자가 납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세할 경우 납세액의 5%를 공제해주며, 180일 이내에 납세할 경우 1%를 공제해줌.



이집트

- 그러나 납세액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에게는 납세액의 15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며, 조세범으로 체포된 경우에는 300%의 벌금이 부과됨.
- 외국인투자기업에게도 이집트 국내기업과 동일한 조세 부과
- 이집트의 조세부담은 인접국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2005년 6월의 조세개혁으로 이집트의 조세부담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평가됨.

2) 법인세

- 법인세율 : 2006년부터 20% 단일세율로 인하됨.
- 과세대상 : 기존 세법(Law 157, 1981)에 따른 과세대상은 모든 기업, 은행 등이며 임차료, 감가상각비, 기부금(당기순이익의 7% 한도), 적립금(당기순이익의 5% 한도), 근로자에 대한 이익배당, 사회보험료 등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됨. 전년도 손실 중 순이익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향후 5년간 이월이 가능함.
- 조세인센티브 : 자유무역지대나 신도시에 투자한 기업이나 투자위원회로부터 투자 인센티브 승인을 받은 기업 또는 기타 투자법에 의해 설립된 기업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세 인센티브가 부여되었으나, 2005년 6월 신조세법(Law 91)이 제정되어 대부분 삭제됨.
- 회계연도 : 정부의 회계연도는 7.1~6.30이며, 공기업도 정부 회계연도를 따르고 있으나, 기업의 회계연도는 보통 1.1~12.31임.

IV 외국인투자 환경

- 회계 : 각 기업은 세금 납부의 근거가 되는 회계장부를 비치 관리해야 함. 정기 주주총회 후 1개월 이내 회계감사보고서를 조세당국에 제출하면 이를 기초로 법인세를 산정하여 과세함.

3) 국가개발세

- 당기 순이익이 E£18,000 을 초과할 경우, 당기순이익의 2%를 국가 개발세로 부과함.

※ 기업의 세금납부 예

가정 : 과세대상소득 E£1,000,000 (A)

	구 세	신 세
과세대상소득(A)	1,000,000	1,000,000
법인세	400,000	200,000
국가개발세(A-18,000)*2%	19,640	19,640
계	419,640(41.96%)	219,640(21.96%)

4) 개인소득세

- 이집트의 개인 대상 세금은 아랍 권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나, 新세법(Law 91, 2005) 제정 이후 크게 낮아짐. 근로세, 국가개발세, 일반소득세가 있으나, 근로세와 국가 개발세는 고용주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근로자는 일반소득세만 납부함.
- 新세법은 종전에 비해 소득계층을 분화하고 세율을 인하해 과세의 형

이집트

평성과 부담을 완화시킨 것이 특징임. 특히 연 5,000E£(867달러) 이하의 저 소득자는 납세의무에서 완전 면제를 시켰으며 5,000 E£ 이상 4만E£ 이하의 소득자들도 세율을 종전의 18%에서 3~8%씩 인하했음.

항목	현 행	개 정
소득세율	50,000E£ 이하 - 18% 50,000E£ 이상 - 32%	5,000E£ 이하 - 면세 5,000~20,000E£ - 10% 20,000~40,000E£ - 15% 40,000 이상 - 20%
과세대상	급여, 보너스, 상업적 영리 소득, 기타 급여소득	급여, 보너스, 상업적 영리소득, 기타 소득, 부동산 소득
면세점	결혼전단독세대 : 2,000E£ 이하 결혼후 세대 : 2,500E£ 이하 부양가족세대 : 3,000E£ 이하	5,000E£ 이하
비과세한도	보험, 연금, 의료비 명목의 지출시 소득총액의 10% 혹은 1,000E£ 중 많은 금액	총소득의 15% 혹은 2,000E£ 중 많은 금액

자료: KOTRA

- 외국인이 이집트에서 6 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10%의 근로세만 부과되지만, 6 개월 이상 근무 시에는 내국인과 동일세율 적용.

※ 개인의 세금납부 예

가정 : 부인과 두 자녀를 부양하는 기혼남성

과세기간 중 소득 U\$50,000(E£290,000) 및 U\$90,000(E£522,000)

IV 외국인투자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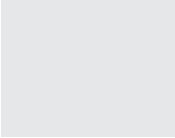
환율 : E£5.8 : U\$1 (단위 : E£)

총소득	290,000	522,000
기본공제	4,000	4,000
가족공제	3,000	3,000
과세대상소득	283,000	515,000
소득세	53,100 ^{주)}	219,640
(세부담률)	(18.31%)	(19.06%)

주) $(5,000 \times 0\%) + (15,000 \times 10\%) + (20,000 \times 15\%) + (243,000 \times 20\%)$
 $= 0 + 1,500 + 3,000 + 48,600$
 $= 53,100$

□기타

- 부가가치세 : 1991년 일반판매세(Law 11, 1991)를 도입하여 수입업체, 도매 및 제조업체에 대해 판매세를 부과해 왔으며, 2001년 5월 이후에는 연소득 E£150,000 이상의 소매 및 서비스 업체까지 부과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일반판매세는 부가가치세로 전환되었음. 평균 부가가치세율은 10%임.
- 물품세(excise tax) : 1600cc 이상 수입차에 30%(2,000cc 이상 수입차는 45%)의 물품세가 부과됨.
- 동산소득세 : 이자, 로열티, 수수료 수입 등에 부과되며 세율은 32%임. 단, 투자법에 따라 승인 받은 기업의 외화차입에 대한 이자자금 등 이윤취득이 목적이 아닌 자본거래는 면세됨.
- 원천과세 : 기업은 E£10 을 초과하는 모든 대외지급에 대해 일정비율을 원천징수하고 징수한 금액을 매분기마다 납부함.



이집트

.....

- 배당금 :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됨. 법인세 면제기간 중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는 면제되며, 면제기간 종료 후에도 주식가액의 10% 내의 배당금에 대하여는 배당세가 면제됨.
- 감가상각 : 감가상각은 정액법(straight - line method)을 사용하며, 내용년수는 조세당국과 협의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내용년수와 상각률은 다음과 같음.
 - 건 물 : 20~50년, 연 2~5%
 - 기계·장비 : 6~10년, 연 10~15%
 - 사무기기 : 5~8년, 연 12.5~20%
 - 차량 운반구 : 4~5년, 연 20~25%
- 법인세 면제기간 만료 후 신규 구입한 기계·장비는 통상적인 감가상각 이외에 구입연도 초기에 구입가격의 25%를 추가로 상각할 수 있음.

마. 노동제도

□ 노동력

- 이집트의 노동력은 풍부한 편이고 비교적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구할 수는 있으나 숙련공은 구하기 힘든 편임
- 2004년 공식 실업률은 11%로 2003년의 9.9%와 비교하여 상승기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비공식적인 실업률은 25~3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IV 외국인투자 환경

- 이집트 전체 취업인구는 약 2,000만 명(남성 69%, 여성 31%)이며, 이 중 600만 명이 공공부문에 취업하고 있음.
- 매년 약 80만 명의 신규 노동력이 노동시장에 유입되고 있으며 15~29세의 실업자가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음.
- 주변국가에 비해 양질의 노동력(문자 해독률 65%)이 풍부하며, 특히 미숙련 노동자와 신규 대졸인력은 풍부한 편이나 숙련공은 부족함.
- 근로자의 이직률 및 결근율은 낮은 편이며, 영어, 불어, 독어 등 외국어 사용가능한 인력을 고용하는데도 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임금

- 이집트의 임금 수준은 낮은 편이며, 민간부문의 임금 수준이 공공부문에 비해 다소 높음.
 - 일반노동직 : E£593/월(US\$96)
 - 중견기술자 : E£1,327/월(US\$215)
 - 법정최저임금 : E£280/월(US\$45)
- 고용증대가 정부의 주요목표이므로 임금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고 있으나, 노동법 34항에 매년 기본급의 7% 이상 임금을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게 책정하고 급여는 기본급에 성과급을 가산하여 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이집트

- 외국인 투자 기업의 임금수준은 동종 업계의 현지기업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며,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E£/월)
 - 영업담당중역 : 35,000 - 40,000
 - 재무담당중역 : 30,000 - 35,000
 - 인사담당중역 : 30,000
 - 중간관리자 : 15,000 ~ 20,000
 - 회 계 사 : 5,000 - 10,000
 - 비 서 : 7,000 - 10,000
 - 사 무 직 : 2,000 - 5,000
- 시간외 근무수당은 낮 시간인 경우 기본급의 125%, 밤 시간에는 150%이며, 모든 기업은 사회보험법에 의거 재해, 실업, 질병 보험료를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매월 납부해야 함.
- 연봉이 E£5,400 이하인 경우는 급여의 40%(기업부담 26%), E£ 5,4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E£6,000까지 40%, 초과분에 대해서는 35%(기업부담 24%)를 납부함.
- 또한 총 급여지급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이익의 10%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매년 1~2개월분의 급여를 보너스로 지급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음.

□ 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은 주 6일, 48시간 근무이나, 민간기업은 일반적으로 주 5일 8시간(오전 8시~오후 4시 또는 오전 9시~오후 5시) 근무로 금요일과 토요일은 휴무임(회교국가는 금요일이 휴일).

IV 외국인투자 환경

□ 휴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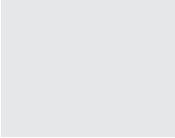
- 연간 휴가일수는 근무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5일, 1년 이상 10년 미만은 21일, 10년 이상(또는 50세 이상의 근로자)은 30일임. 위험한 직종이나 벽지근무에 대해서는 휴가일수를 일주일까지 추가로 제공해야 함.
- 유급질병휴가는 1년에 6개월까지 가능하며 통상급여의 75~85%를 지급함.
- 여성의 육아휴가는 45일간이며 1년간 육아휴직(3회)도 가능함.

□ 고용계약

- 노동법 규정을 준수하여 아랍어로 3부 작성, 고용주 및 피고용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사회보험당국에 제출해야 함.
- 전습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서에 명시해야 함.
- 일정 기한을 전제로 한 고용 계약이 추후 갱신될 경우 무기한 계약으로 간주함.

□ 해 고

- 정부는 근로자의 해고에 대해 엄격히 감독하고 있어 기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수습기간 3개월 경과 후 회사에 큰 손실을 입히거나, 연간 20일 이상 결근 혹은 10일간 연속 무단결근한 경우, 회사기밀의 누설, 유죄 판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이집트

-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본인에게 통고하여야 하며, 노동 감독기관, 노조, 고용주로 구성된 노동중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함.
- 해고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민간기업은 근로자 고용 시 날짜를 명기하지 않은 사직서를 받거나 유사한 타 직장에서의 직장알선 혹은 퇴직 보상을 주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함.

□ 노동조합

- 50명 이상의 종업원을 보유한 기업은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 노조를 결성할 수 있음.
- 석유, 화학, 철강, 섬유, 운송노조 등 각 산업별로 약 27%의 종업원이 노조에 가입해 있으며 대부분이 공공부문 근로자임.
- 노조의 파업은 불법이지만 가끔 기업별로 조업 중단사태가 발생하기도 함.

V. 우리나라의 진출확대 방안

1. 양국간 교역 및 투자 현황

가. 교역현황

1) 연도별 교역현황

<표 V-1>

연도별 한-이집트 교역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1995	469	32.3%	115	-27.4%	354
1996	474	1.0%	87	-24.9%	387
1997	443	-6.5%	148	70.4%	295
1998	637	43.9%	189	27.7%	449
1999	569	-10.8%	260	37.7%	309
2000	516	-9.3%	138	-46.8%	378
2001	431	-16.4%	139	0.5%	292
2002	321	-25.6%	134	-3.4%	187
2003	425	32.5%	195	45.3%	230
2004	538	26.5%	337	72.6%	201
2005(1~11)	628	16.7%	138	-59.2%	490

자료 : KOTIS

□ 2002년 이후, 교역규모 및 무역수지 증가세 유지

- 우리나라의 對 이집트 수출은 이집트의 외환부족과 강력한 수입억제 정책으로 1999년 이후 급격한 감소세를 보여 2002년 약 3억 달러 수준으로 1998년의 절반 수준을 기록 하였으나, 그 후 이집트 경제의 회복세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증가, 2005년 6억 3천만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이집트

- 원유, 나프타 등 원자재 중심의 수입 물량은 2004년 증가세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이집트 기업의 무관심과 뚜렷한 전략 상품 부재로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음.

2) 주요 교역 내용

□ 주요 수출품목은 수송기계, 석유화학제품

- 이집트는 우리나라의 2005년 거래 규모를 기준으로 볼때, 전체 수출대상 국가중 45위, 수입대상국가중 62위의 무역 대상국가국임.
- 우리의 5대 수출 품목은 수송기계(자동차 등), 석유화학 제품, 산업용 전자제품, 섬유사, 산업기계 등이며 이들 5대 상품의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특정 품목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편임.
- 특히 2005년은 승용차 수출 증가율이 지난해 대비 205%에 달하고 있어 대 이집트 수출 증가를 견인하고 있음.

<표 V-2>

한국의 對 이집트 주요 수출품목

단위 : 천 달러, %

순위	품목명	2004		2005(1~9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수송기계	538,392	26.5%	484,307	21.4%
2	석유화학제품	90,305	75.6%	64,839	0.1%
3	산업용전자제품	31,973	6.6%	24,558	-16.0%
4	섬유사	54,537	-8.6%	24,068	-34.4%
5	산업기계	28,686	-17.1%	22,162	0.5%
6	철강제품	28,103	57.8%	20,045	10.8%
7	고무제품	21,373	5.2%	19,295	14.9%
8	정밀화학제품	18,704	36.2%	17,979	31.5%
9	기초산업기계	23,646	149.2%	14,701	8.0%
10	가정용전자제품	28,986	43.9%	13,695	-57.1%

자료 : KOTIS

V 우리나라의 진출확대 방안

□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 등 원자재

- 우리나라가 이집트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은 원유, 나프나, 커피 등 원자재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수입량은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음.

<표 V -3>

한국의 對 이집트 주요 수입품목

단위 : 천 달러, %

순위	품목명	2004		2005(1~9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광물성원료	305,206	92.4%	70,225	-69.2%
2	농산물	18,545	-33.4%	9,215	-45.8%
3	비금속광물	2,594	38.5%	4,217	109.9%
4	비철금속제품	5,312	459.1%	3,002	-39.4%
5	섬유사	1,790	-43.6%	1,284	-19.6%
6	가죽 및 모피	400	25.5%	1,274	264.3%
7	공예품	309	181.2%	704	203.8%
8	요업제품	323	181.2%	571	214.0%
9	고무제품	497	-32.6%	494	42.0%
10	플라스틱제품	142	-	307	193.4%

자료 : KOTIS

나. 해외직접투자 현황

□ 투자 금액은 비교적 미미, 향후 투자 증대 기대

- 지리적으로 원거리이고, 이슬람 국가인 이집트에 대한 낮은 인지도로 우리나라의 對 이집트 해외투자 실적은 비교적 미미한 편으로 총 15건에 약 138백만 불 규모임.

이집트

<표 V-4> 우리기업의 對 이집트 주요 해외투자사업 현황

단위 : 천 달러

투자회사명	투자년도	투자내역	투자금액
LG전자	1990	TV 부품생산 및 조립	6,645
동일방직	1997	카이로지역 면사제조	532
	2005	공장매입 증액 투자	
SK	1997	이집트 석유광구 비분투자	52,048
동산토건	1997	섬유생산	262
계현 카이로	2002	섬유생산	78
유나이티드제약	2005	항암제 생산	19
테스کم	2004	호제, 조제 등 섬유첨가제	15

□ 섬유, 가전 등 특정 분야에 편중

- 이집트는 1990년대 이후 본격적인 산업육성 정책을 시행하여, 섬유, 제약, 식품가공, 전자조립 등 몇몇 분야 외에는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바, 우리기업의 진출 분야도 이들 특정 분야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향후 투자 전망은 밝은 편

- 거대 시장에 인접한 전략적 요충지임
 - 이집트는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음. 거대시장인 EU, 최근의 유가급등으로 오일달러가 넘치는 아랍권 및 미개척 시장인 아프리카의 길목에 있어 최상의 시장 접근성을 보여주고 있음.
-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음
 - 약 72백만 명에 이르는 역내 최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이집트는

V 우리나라의 진출확대 방안

전체인구 중 노동가능 인구인 16세~65세 연령 대 인구비율이 63%에 달함

- 이중 가장 생산성이 높은 15세~39세 사이의 노동인구가 41%에 육박하고 있음. 또한 실질 실업률이 20%를 넘고 있어 최저임금수준(약 2~5달러)으로도 양질의 인력 채용이 가능함.

- 또한, 이집트 전체 약 150개 대학에서 매년 23만 명의 우수 노동인력을 배출하고 있으며 특히 대부분 고학력층들이 영어와 불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등 노동인력의 질이 높은 편임

- 양호한 원자재 조달여건을 갖추고 있음

- 이집트는 석유와 천연가스, 전력 등 공업생산에 필수적인 에너지원의 가격을 국가가 낮은 수준으로 통제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조달 가능. 또한 섬유산업에 필요한 화학수지 및 양질의 원면을 손쉽게 조달.

- 우수한 정치, 경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

- 유럽, 중동, 아프리카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이집트는 공항과 도로, 철도, 항만 등 비교적 양호한 인프라 여건을 보유하고 있음.
- 또한 무바라크 대통령의 안정적 집권체제 유지로 정치적 불안요소가 적으며, 이슬람 국가이면서도 타 종교를 허용, 외국문화에 관대한 편임.

다.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현황

□ 대 이집트 금융지원 현황

이집트

- 수출입은행의 대 이집트 금융지원은 2006년 1월 현재, 약 130만 달러 규모로 미미한 수준이나, GS건설이 이집트 석유건설공사와 함께 진행 중인 4억 달러 규모의 알킬벤젠 플랜트 건설공사가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하에서 준비되고 있어 향후 지원규모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표 V -5> 수출입은행 對 이집트 금융지원 현황(2006.1월말 현재)

단위 : 천 달러

구 분	승인액	집행액	대출잔액
수출보증	938	938	938
보 증	370	370	370
합 계	1,308	1,308	1,308

2. 진출확대 방안

가. 진출시 유의사항

□ 지정학적 리스크 고려

- 친 서방 국가인 이집트는 중동 지역 내에서도 지정학적 위험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국가임에는 틀림없으나, 주변국 상황에 따라 경제에 큰 충격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음.
- 지난 1997년 룩소르(Luxor) 테러 및 이라크전 발발 전후로 경제 전반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으며, 최근에도 90여명의 사상자를 낸 2005년 7월, 휴양지 샤름 알 셰이크(Sharm al - sheikh) 테러 사건 발생 등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외부충격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V 우리나라의 진출확대 방안

- 아울러, 최근의 이란 핵문제의 UN 안보리 회부 등으로 더욱 높아진 긴장상황의 진행 경과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주변 유럽 및 중동, 아프리카 등 제3국 진출 가능성 고려

- 이집트는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으나, 소득 수준이 낮아 내수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이집트에 투자를 하는 경우, 내수시장 보다는 인접한 거대 시장으로의 진출 여건을 잘 분석하여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투자를 고려해야 함.
- 특히, 이집트는 여러 거대 시장과 자유무역 협정이 잘 체결되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 시장성 검토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표 V-6> 이집트의 자유무역 협정 체결 현황

협정명	주요 내용
COMESA (Common Market for Eastern & Southern Africa)	-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 - 수단, 에티오피아, 케냐 등 21개국 가입
EU - 이집트 Partnership	- 영국, 프랑스, 이태리 등 EU15개 가입국 - 사실상 FTA 협정 수준
아랍자유무역지대	- 사우디, 요르단 등 아랍연맹 산하 22개국
QIZ (Qualifying Industrial Zone)	- 제한산업지대 협정(미국, 이스라엘) - 대미 수출품에 이스라엘 원부자재가 11.7% 이상 사용된 상품은 무관세 수출 가능
협상중인 개별 FTA	- 러시아, 터키, 싱가포르, 스리랑카, 호주, 브라질, 루마니아, 미국

이집트

□ 정부 기관 및 관료들의 업무 방식 유의

- 이집트는 아직까지 공무원들의 비리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아울러 규정과 동떨어진 임의적인 업무처리, 비능률, 복잡한 행정 절차 등이 투자 실행 후에도 큰 애로사항이 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로부터 발생하는 오류와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 진출 업체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부터 충분한 사전 상담과 준비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수적임.
- 아울러, 일반적으로 단독투자보다는 외풍을 막아주고 현지 시장 장악력을 보유한 유력 업체나 인사를 스폰서나 합작 파트너로 활용하여 투자하는 방식이 바람직 함.

나. 수출 및 투자진출 유망 분야

□ 천연가스 처리시설, 석유화학 플랜트 수출

- 이집트는 최근 잇따른 대형 유전 발굴 성공에 따라, 천연가스를 국가 에너지 기간자원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중점 육성코자 리비아, 이스라엘, 시리아, 레바논, 터키, 유럽을 잇는 가스관 연결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아울러, 산업화의 근간이 되는 석유화학 분야의 육성을 위해 지난 2003년 석유화학산업 발전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동 계획에 의하면, 이집트는 대부분 외자유치의 형태로 100억 달러를 투자하여, 향후 20년간 매년 15백만 톤 규모(7억 달러 상당)의 석유화학제품을 생산 할 수 있는 14개의 석유화학 플랜트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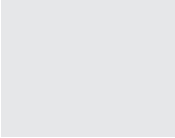
V 우리나라의 진출확대 방안

건설 할 계획임.

- 특히 이집트는 폴리프로필렌, 알킬벤젠, 질소비료, 폴리비닐 및 암모니아 등의 석유화학 제품 생산시설 건설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이 분야에 우리기업들의 활발한 진출이 기대되고 있음.

□ IT 산업

- 이집트 정부는 이집트를 ‘아프리카 IT허브’로 육성키 위해 매년 10억불 정도를 IT 인프라 구축에 투입하고 있음.
 - 정보통신 기술의 대중화를 위해 ‘1가정 1PC보유’, ‘전학생의 PC보유’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국적 IT기업 유치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음.
- 이러한 정책은, 캐나다에서 컴퓨터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유학파이며, 전직 정보통신부 장관 출신인 나지프(Nazif) 총리에 의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음.
- 이에 힘입어, 휴대전화 가입자가 연 110%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한편, 인터넷 사용인구 또한 약 400만 명에 달해 약 70%이상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음.
- 현재 노키아가 저가 전략을 내세우면서 이집트 휴대전화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고가 전략을 유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약 25%의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음.
- 아직까지 이집트의 IT산업 수준은 걸음마 단계로, 당장의 투자로 단시일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는 없겠지만, 성장 잠재력과 인근



이집트

아프리카, 중동국가로의 확대 진출 가능성이 무한한 매력 있는 시장이 되고 있음.

□ 제약 산업

- 이집트는 중동, 아프리카 지역 의약품 공급의 약 30%를 담당하는 주요 의약품 생산국임. 최근 유로화 강세로 유럽이나 미국으로부터의 의약품 원료 수입단가가 높아져 한국과 인도 등으로 수입선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음.
-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한국산 항암제, 항생제, 백신, 항진균제 등의 수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
 - 특히 항암제와 항생제는 유럽산에 비해 40% 이상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타 심장질환 치료제, 백신, 고혈압 치료제 등 이집트인들의 고질적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품분야의 선전이 기대됨.

□ 기타

- 소모성 자동차 부품생산 : 약 400만대에 가까운 자동차가 운행되고 있으나 이중 약 70%가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으로 자동차 부품수요 증가 추세
- 의료기기 생산 : 인구 7천만 명의 대국이나 의료기기 공급이 부족하고 생산기술은 전무함. 의료기기 완제품은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 신발 및 피혁제품 제조 : 풍부한 원피에도 불구하고 Tanning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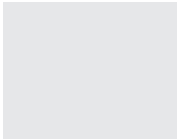
V 우리나라의 진출확대 방안

및 시설 부족으로 저질 제품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임. 기술 및 소규모 시설 투자만으로도 단시간 내 가시적 성과를 기대 할 수 있음. 신발 디자인 및 기술수준이 조악하여 수입품 선호.

다. 정책과제

□ 이집트 정부의 석유화학산업 개발계획에 따른 대규모 플랜트 발주에 대한 우리기업 수주 지원

-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집트는 최근의 오일달러 유입, 대형 천연 가스 유전 발굴 및 관광산업 회복 등에 기인한 경제회복 모멘텀을 활용하여 석유화학 산업을 국가 중점산업으로 육성키 위해, 총 100억 달러를 투자하여 연 7억달러 상당의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14개의 석유화학 대단지를 건설 한다는 야심찬 석유화학산업 발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현재 2002년~2008년까지 총 35억 달러가 투자되는 제1단계 사업이 착수되었으며, 첫 플랜트 발주건인 4억 달러 규모의 선형알킬벤젠 플랜트 건설 건을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하에 우리나라 GS 건설이 수주에 성공한 바 있음.
- 이집트 정부는, 오일달러 유입으로 경쟁적으로 건설되고 있는 중동지역 석유화학 플랜트들과 경쟁하기 위해,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여 시장을 선점한다는 전략 하에 사업 착수를 서두르고 있음.
- 이에, 대규모 플랜트 건설 발주에 우리기업이 적극 진출하여 수주경쟁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 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비롯하여 중장



이집트

기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의 맞춤형 금융지원, 입찰 정보의 적기 제공 등 조직적이고 정책적인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이집트 석유화학공사(ECHEM ; Egyptian Petrochemical Holding Company)가 주도하는 상기 석유화학 (Down-stream)사업 뿐 아니라, 국영석유공사(EGPC ; Egyptian General Petroleum Company) 및 국영가스공사(EGAS ; Egyptian Natural Gas Holding Company)가 주도하는 유전 개발(Up-stream) 사업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수주 지원활동도 전개되어야 할 것임.

